

碩 士 學 位 論 文

그레엄 그린(Graham Greene)의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양상

– *The Power and the Glory, The Honorary Consul, Monsignor Quixote*에 등장하는 사제(priest)를 중심으로 –



英 語 英 文 學 科

朴 安 子

1999年 6月

그레엄 그린(Graham Greene)의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양상

- *The Power and the Glory, The Honorary Consul, Monsignor Quixote*에 등장하는 사제(priest)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仙 姬

朴 安 子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朴安子の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9年 6月

The Religious Aspect in Graham Greene's Novel  
– Centering on priests in *The Power and the Glory*,  
*The Honorary Consul*, *Monsignor Quixote* –

Park Ahn-j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NGINEERING

DEPARTMENT OF INFORMA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9. 6.

# 목 차

I. 서 론 .....	1
II. 그린랜드(Greeneland) .....	10
III. 종교적 상징성과 의미	
A. 천국의 사냥개 .....	17
B. 양과 염소 .....	25
C. 선과 악 .....	30
D. 마지막 미사 .....	35
E. 고해성사 .....	45
F. 부활 .....	50
IV. 사제들의 삶과 죽음	
A. 의식과 행동 .....	55
B. 정치와 종교 .....	61
C. 죽음, 그 동기와 과정 .....	70
D. 죽음의 실체와 의의 .....	73
V. 결 론 .....	79
Bibliography .....	83
Abstract .....	87



## I. 서 론

20세기 영국 최고의 작가 중 한 사람인 그레이엄 그린(Graham Greene : 1904~1991)은 그의 “종교소설” 작품들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인간구원의 길을 탐구한 작가였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치와 종교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인간성 회복과 구원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그린이 첫 소설 『내부의 사나이』(*The Man Within*)(1929)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시작한 1930년대는 러시아 혁명과 제 1차 세계 대전을 겪은 후의 사회에 대한 불안과 인간에 대한 환멸의 분위기가 팽배한 시기였다. 특히 자본주의의 몰신성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과 소외에 환멸을 느끼던 당시 지식인들에게 러시아혁명의 성공은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심어주어 많은 지식인들이 마르크시즘에 빠져들었으며, 당시 옥스퍼드 학생이었던 그린 역시 1923년에 공산당에 입당하였다가 곧 탈당하기도 한다.

그린은 1926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종이 단지 신의 존재의 가능성을 지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종교에 대한 감정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신학적인 교의와 갈등을 겪었으며 그후 그의 작품세계는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는 리베리아(Liberia)에서의 정신적 각성을 통해 9년만에 진정한 개종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종교의 본질과 인간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그린은 공산주의를 비롯한 제반 정치제도가 사회개혁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정치이데올로기가 현실 속에서 교조화의 길로 빠지는데 대하여 깊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소외 극복의 대안을 종교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후 그는 종교를 통해 인

간성 회복의 문제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sup>1)</sup>

그러나 그린의 인간성 회복의 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는 이상적인 종교와 현실의 종교가 갖는 괴리였다. 따라서 그린은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기존 교회체제의 교조화와 비인간화에 대해 냉철하고 신랄한 비판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는 그의 종교적 관점을 이단으로 취급하여 그의 작품을 금서로 지정한 바 있다.<sup>2)</sup> 반면, 조셉 가이스트(Josep E. Geist), 제임스 켈러허(James P. Kelleher)와 같은 비평가들은 그를 가톨릭시즘(Catholicism)에 충실한 “가톨릭 작가”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서로 상반된 평가에 대해 그린 자신은 가톨릭시즘이 단지 소설의 소재와 구성을 제공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3)</sup>

본 논문은 그린의 주요 소설들에 나타나는 종교적 양상을 살펴보고,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종교적 양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그가 추구했던 사

---

1) 1930년대 작가들은 당시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사회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작가로서의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린 역시 “작가란 인권 옹호자로서 파시즘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전쟁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 해답을 로마 가톨릭에서 찾았다. A. A. DeVitis, *Graham Greene*, rev. ed., (Boston: Twayne Publishers), 8.

2) 그린은 그의 종교소설에서 대부분 비정상적인 사제나 부패한 교회를 다루었기 때문에 로마교황청은 그의 소설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한 예로 『권력과 영광』은 신부의 심리상태를 너무도 나약하게 묘사했다는 이유로 1948년 교황청의 금서목록에 올랐다. Joe Straub, “A Psychological View of Priesthood, Sin and Redemption in Graham Greene’s *The Power and the Glory*.” *Third Force Psychology and the Literature* ed. & introd. Paris Bernard J. Rutherford (NJ: Fairleigh Dickinson UP, 1986), 205.

3) 로버트 애반스(Robert O. Evans)도 “그린의 작품의 모체는 가톨릭적이다. 그러나 그의 본래의 의도는 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표현하는데 가톨릭 신앙을 소재로 삼았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Robert O. Evans, *Graham Greene: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Lexington: U of Kentucky P, 1963), ix.

회와 인류구원<sup>4)</sup>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논문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의 최고의 종교소설인 『권력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1940), 그린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명예영사』(*The Honorary Consul*)(1973)<sup>5)</sup> 그리고 그린의 마지막 종교소설인 『몬시뇨르 키호테』(*Monsignor Quixote*)(1982)를 중심으로 그린의 소설에 나타나는 종교적 요소들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그린의 소설의 밑바탕을 이루는 교회관과 인간관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종교적 요소들이 갖는 의미와 비중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각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제(priest)를 중심으로 그린의 추구하는 구원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명예영사』의 리바스 신부(Father Rivas)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듯이, 사제야말로 혁명과 격동의 현실 속에서 정치적 입장과 종교적 입장을 동시에 표출하면서

---

4) 불교에서의 구원은 개인의 수양을 통하여 인간을 속박하는 집착과 번뇌를 끊어버림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얻는 상태, 즉 니르나바(nirvana: 해탈, 열반)를 뜻한다. 또한 그리스도교에서의 구원은 원죄로 말미암은 현실의 질곡을 신앙을 통하여 극복하고,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근대까지의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개념은 영과 육, 현세와 내세의 이원론에 입각하여 육체를 도외시한 영혼만의 구원, 현세를 무시한 사후의 복락만을 추구해왔으나 근대에 와서는 육체성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integrity),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연대성(solidarity)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또는 제 3세계 신학은 이러한 시도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인간 구원의 문제는 영혼만의 구원, 내세에서의 구원, 개인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구원, 즉 전 인류의 연대성에 기반한 구원이다. 그린은 개인의 양심과 죄의 용서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악의 타파와 공동체 의식을 통한 전 인류의 구원을 모색하고 있다.

5) 그린은 1979년 마리 프랑소아즈 알랭(Marie-Francoise Allain)과의 대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명예영사』이며, 그 다음은 『권력과 영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Marie-Francoise Allain, *The Other Man: Conversation with Graham Greene*, Tr. Guido Waldma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129.

인간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연구대상을 그린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사제와 종교적 의미들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그린에 관한 기존의 비평들이 정작 그린의 지향했던 가장 근본적인 목표, 다시 말해서 인간구원이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사제의 자기성찰과 희생을 통한 종교적 구원 - 특히 『권력과 영광』의 위스키 신부(Father Whisky) - 으로 보거나,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단순 대립구조로 파악하는 - 『권력과 영광』에서 위스키 신부와 경위의 비교, 혹은 『몬시노르 키호테』에서의 가톨릭 교회와 공산주의의 관계 등 - 정도에 국한되어 그린의 종교적 틀과 소재를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린이 그의 작품을 통하여 항상 사제의 죽음을 도출하고 정치와 종교의 문제를 고민한 이유는 바로 인간구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함이다. 그는 형식과 제도에 얽매인 종교가 더 이상 인간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간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회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노력한 작가이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이 그의 소설의 주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방식<sup>6)</sup>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그린의 소설에 나타난 종교적 양상과 구원에 대한 명확한 접근을 위하여 그의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60년대까지의 그린의 소설에 대한 비평은 『권력과 영광』에 집중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권력과 영광』은 그의 작품세계에 있어서 중요하며

---

6) 폴 오프리(Paul O'Prey)에 의하면 그린은 『권력과 영광』을 첫 출발점으로 하여 정치와 종교를 통합적 주제로 다루려고 시도했으며, 그린의 이런 경향은 60년대 이후로 사회적, 정치적 색채가 가미되면서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그린의 시도는 마침내 『몬시노르 키호테』에 이르러 인간애를 기초로 하여 종교적, 정치적 신념의 타협점을 찾아내고 있다. Paul O'Prey, *A Reader's Guide of Graham Green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12.



거대한 산맥을 이루는 작품이다. 이에 대한 비평의 시각은 주로 신부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신부가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 마침내 부활한다고 해석하는 정통 가톨릭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7)</sup>

70년대로 들어서면서도 비평의 관점은 가톨릭시즘을 중심으로 한 시각에 한정되고 있다. 다만 위스키 신부와 경위와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정치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입장이 추가될 뿐이다. 이처럼 종교주의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비평가로는 위스키의 죽음을 영웅적, 순교자적 최후로 파악하며 그를 통해 신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난다는 입장을 가진 쿨슈레스타(J. P. Kulshrestha), 그리고 위스키의 용감한 회개와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며 그의 성인다움을 찬양하는 로저 셰록(Roger Sharrock)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비평적 시각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위스키 신부를 중심으로, 특히 그의 순교적 죽음을 중심으로 그린의 작품세계를 파악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중반 이후 『명예영사』가 발표되면서 약간의 전환을 맞게 된다. 즉 『권력과 영광』의 위스키 신부처럼 자신의 안일과 사제직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제의 모습에서, 『명예영사』에 이르러서는 아예 사제직을 스스로 거부하고 혁명전선에 뛰어드는 리바스 신부의 모습으로 전환함으로써 비평의 시각 역시 보다 복잡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 작품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맞물려 많은 비평가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즉 해방신학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현실참여 문제가 작품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으로 『명예영사』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7) 허버트 하버(Herbert Harber)는 “The Two Worlds of Graham Greene.” *Modern Fiction Studies* III(Autumn, 1957)에서 위스키 신부의 죽음을 성인품에 이르는 숭고한 죽음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프랜시스 킨클(Francis Kunkel)은 *The Labyrinthine Ways of Graham Greene* (NY.: Paul P. Appel, 1960)에서 위스키 신부의 겸허한 회개를 중심으로 신만이 그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구원론적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평적 관점을 지닌 그레이엄 스미스(Graham Smith)에 따르면, 그린의 초기작품에서는 신앙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내면세계가 그의 작품 전반을 이루고 있었으나, 원숙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와 종교의 문제라는 두 주제가 복잡하게 얽혀지고 그 딜레마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작품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181).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의 주류는 역시 신앙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이데올로기와 신앙의 갈등 속에서 결국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린의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관점에 비판적인 새로운 시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는 소위 “제 3의 심리학(The Third Force Psychology)”<sup>8)</sup>에 기반을 둔 관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권력과 영광』의 위스키 신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제까지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다. 즉 기존의 시각이 위스키 신부를 순교자로 바라보았다면, 제 3의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그를 자의적 삶이 아닌 타의적 삶을 살다 죽은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스키 신부는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 결여된 수동적 삶의 영위자이며, 따라서 그의 죽음조차도 단순히 현실 도피적인 도망자의 죽음으로 철저하게 비판당하고 있다.

또한 프리티 싱(Preeti Singh)은 소위 후기 식민주의에 기초한 제 3세계적 관점에서 그린의 소설을 바라보고 있다. 즉 “그린랜드(Greenland)”를 열등한 “타자(the other)”라고 보는 그린의 우월주의적 경향은 영국의 힘이 점차 위축됨에 따라 후기 작품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

---

8) 제 3의 심리학이란 기존의 심리학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로서 인간의 죄악과 윤리에 관심을 보이는 측면에서는 기독교와 유사하나,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자제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은 서로 다르게 제시한다. 기독교가 원죄에 물든 인간을 “교회법”이라는 외부적 힘으로 다스리는 반면, 제 3의 심리학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독려한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은 외부에서 강제된 속박은 인간의 자의식을 억누르고 선한 모습으로 가장하게 할 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Joe Straub, 193, 200)

다고 파악한다(302-304).

한편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바흐친(Bakhtin)의 대화 이론을 도입하여 그의 소설을 대화적 소설로 파악하면서 언어의 이어성(heteroglossia)과 대화적 관계를 조명하는 “그린 다시 읽기(re-reading)”라는 새로운 시도도 보인다.<sup>9)</sup> 이밖에 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그린의 소설에 나타나는 서술기법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등장한다. 즉 그린은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모순어법(oxymoron)을 통한 수사적 효과를 가지고 역설의 세계를 구현한다고 보고 있다(Creese 141-157).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80~90년대의 새로운 시각들이 기존의 시각에 비하면 대단히 획기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관점에 기반을 둔 비평의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비평의 주류에 다소나마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한 작품이 1982년 출간된 『몬시뇨르 키호테』이다. 그린의 소설 중에서 이 소설만큼 기존 교회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설도 드물다. 이전의 소설들이 파계하거나 평범하지 못한 사체를 주인공으로 하여 교회의 반발을 야기했다면, 『몬시뇨르 키호테』에서 그린은 지나치리만큼 순수한 키호테 신부(Father Quixote)를 통해 윤리신학을 중시하는 기존의 교회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아울러 그린은 이 작품에서 키호테 신부와 산초(Sancho)의 구체적인 대화들을 통하여 당시 가톨릭 교회가 악마의 세력으로 보고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관대한 포용력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이르러서야 그린의 추구하는 종교와 정치의 대립구조의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그린의 세 소설 - 『권력과 영광』, 『명예영사』, 『몬시뇨르 키호테』 - 의 무대와 배경인 소위 “그린랜드(Greenland)”의 내용과 그 의미를 각 작품 별로 분석한다. 그 다음 세 소설에 나타나는 종교적 상징성

---

9) Brian Phillip Kennedy, “Cultural Critical and Catholic Politics: A Dialogic Re-Reading of the Novels of Graham Greene.” Diss., Miami University, 1993.

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비평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종교적 양상을 통한 구원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향한 그린의 종교관과 인간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양과 염소”의 상징과 그것들이 소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는 것은 그린의 그의 작품 속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선과 악”의 문제를 이해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또한 세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미사”의 의미와 상징성은 기존 교회체제의 문제점들과 올바른 종교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그린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의 세 소설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제 - 위스키 신부, 리바스 신부, 키호테 신부 - 의 삶과 죽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사제의 의식과 행동을 파악하고, 다음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 혹은 이데올로기와 교조주의의 문제를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사제들이 죽음에 이르는 동기와 과정을 살펴보고, 또 죽음의 실체와 그 의의를 연구할 것이다. 과연 그린은 왜 세 명의 사제들로 하여금 죽음이란 결론에 이르게 설정을 했으며 그 과정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은 그린의 사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그린의 그의 소설들을 통하여 지향하는 인간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의 사상의 궤적을 살펴보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그린의 기존의 교회와 정치이데올로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조주의의 극복”과 “관용의 정신”을 중시하면서, 이를 통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정치이데올로기나 사회제도, 그리고 종교

조차도 그것이 교조화된 틀에 얽매어 있는 한 결코 인간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이 일생동안 그의 소설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은 바로 관용의 정신이며 희생을 동반하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실천임을 밝히려고 한다.



## II. 그린 랜드(Greenland)

그린의 종교소설에서 작품배경으로 등장하는 무대들은 대부분 억압받는 암울한 사회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 무대들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작품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세 작품의 배경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린은 자신의 작품무대가 되고 있는 이 곳들을 총칭하여 “그린랜드(Greenland)”라 불렀다. “그린랜드”는 북극 근처에 있는 얼어붙은 동토의 땅 “Greenland”의 패로디(parody)이며, 그린 자신의 이름에서 딴 “그린(Greene)”과 “랜드(Land)”의 합성어인 셈이다. 이 그린랜드가 풍기는 분위기는 이름 그대로 뭔가 긴장되고 억눌려 있으며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다. 많은 비평가들은 그린의 그린랜드를 설정한 원인을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억눌림의 기억에서 찾고 있는데, 마리아 꾸토(Maria Couto)는 “그린은 어린 시절부터 지옥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고 가엾은 인간은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올가미에 갇혀있다”(66)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폴 오프리(Paul O'Prey)도 “많은 비평가들은 그린의 소설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억압된 정신 세계의 반영이라 본다. 따라서 그가 묘사하는 리얼리티는 자신의 왜곡된 인생관으로 인해 신비적 ‘그린랜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7)라고 언급한다.

이처럼 그린은 세상을 악의 온상으로 보았던 그의 어두운 세계관으로 인하여 늘 선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고 고통과 억압이 만연한 세계로 이끌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린은 1938년 멕시코를 여행한 후 『무법의 여로』(*The Lawless Road*)를 썼으며, 이 기행문은 『권력과 영광』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명예영사』의 무대가 되는 파라과이 국경의 소도시 코리엔테스(Corrientes)도 그린의 여행을 하면서 작품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은 아프리카의 시에라 레온(Sierra Leone)을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곳을 여행했는데, 그에 관한 자서전과 비평서적들은 프로이드(Freud)식의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분명 일면적인 것이다. 그린의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이를 작품의 무대로 활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역들이 갖는 공통점이다. 즉 『권력과 영광』의 무대가 되는 혁명 중의 멕시코나, 반독재 민족해방운동이 한창이던 『명예영사』의 과라과이, 그리고 『몬시뇨르 키호테』의 무대가 되고 있는 프랑코 사후의 스페인은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혁명의 와중에 있으며 민중들은 억압과 빈곤에 처해있다.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곳이며, 세계사에 있어서의 격변의 현장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린의 이들 지역을 작품의 무대(그린랜드)로 설정한 까닭은 결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목적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권력과 영광』의 무대가 되고 있는 멕시코를 살펴보면, 그린은 1938년에 멕시코를 여행하면서 치아파스(Chiapas)와 타바스코(Tabasco)지역 등을 방문하며 그 내용을 『무법의 여로』라는 기행문으로 남겼다. 무대가 되는 멕시코의 당시 상황은 1910년 농민봉기로 인한 혁명의 결과로 사회주의적 정권이 들어서고 있었다. 가리도 카니발(Garrido Cannibal)정권은 사회주의를 실현할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시즘적 통치를 펴고 있었다(DeVitis 76). 그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는 우매한 민중을 현혹하는 사회악으로 취급당하며, 교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심각하게 자행되었다. 또한 민중들은 정치적 탄압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린은 『권력과 영광』의 첫 장면에서 당시의 상황을 죽음의 이미지가 가득한 음산한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작품무대인 그린랜드의 칙칙하고 얼어붙은 것 같은 특성을 이 장면만큼 잘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Mr. Tench went out to look for his ether cylinder, into the blazing Mexican sun and the bleaching dust. A few vultures looked down from the roof with shabby indifference. . . . over the tiny plaza, over the bust of an ex-president, ex-general, ex-human being, over the two stalls which sold mineral water, towards the river and the sea. It wouldn't find anything there: the sharks looked after the carrion on that side.(PG 7)<sup>1)</sup>

위의 배경묘사처럼 죄, 고통, 죽음이 만연한 곳이 바로 그린랜드이며, “버려진 별(abandoned star)”과도 같은 멕시코에 대한 묘사는 그린이가 갖고 있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인식”의 반영이지 결코 단순한 풍경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Kulshrestha 76). 마리아 꾸또 역시 그린이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의 소설에서는 인류의 타락상이 마치 ‘버려진 별’에 사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인공들은 어디에나 만연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잔인한 하늘(a merciless sky)’ 아래 내팽개쳐져 있다. 자비로운 신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간극(gap)은 단순히 말로 설명되기보다 ‘그린랜드’라는 살벌한 풍경의 형태로 은유적으로 나타난다. 즉, 원죄로 물든 세상을 나타내기 위해 그린이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계를 그려낸 것이다”(66)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명예영사』에서는 『권력과 영광』보다 훨씬 더 혁명적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린이가 이 작품을 쓴 것은 1970~1973년 사이이며 이 당시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의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카스트로(Castro)가 쿠바혁명에 성공하고 체 게바라(Che

---

1) 본 논문에서 『권력과 영광』은 다음 책에서 인용하고, 이후 본문의 인용에는 위 인용문의 표기처럼 책 제목(PG)과 쪽수만을 밝힌다. Graham Greene, *The Power and the Glory* (New York: Penguin Books, 1971)



Guevara)<sup>2)</sup>가 볼리비아 혁명전선에서 사망하며, 중남미 전역이 반독재, 반제국주의의 소위 제 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분위기에 휩싸인다. 민중들은 독재와 빈곤에 시달리며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사독재정권은 민중탄압과 살상을 자행한다.

그러나 교회는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로 인해 해방신학<sup>3)</sup>이 등장하고 사제들이 무기를 들고 게릴라에 합류하는 등 현실정치에 대한 의식있는 사제들의 참여가 증가한다. 특히 까밀로 토레스 신부(Camillo Torres)<sup>4)</sup>의 죽음은 교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명예영사』에서 게릴라 전사로 변신한 리바스 신부의 경우도 까밀로 토레스 신부가 암묵적으로 그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명예영사』에서 리바스 신부는 다음과 같이

---

2) 체 게바라(Che Guevara)(1928-67)는 아르헨티나의 중류가정 출신인 의사이자 라틴 아메리카의 게릴라 지도자이며 1960년대 신좌파운동(New Left Radicals)의 영웅이다. 1950년대 후반 그는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정권에 대항한 카스트로의 게릴라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게릴라 투쟁에 대한 이론가로서 중국혁명의 마오쩌둥과 함께 제 3세계 혁명운동의 우상이다.

Che Guevara: Short Biography, <http://www.geocities.com/Hollywood/8702/short.html>

3) 해방신학은 성서적 메시지를 사회적 차원에 맞춰 하느님의 구원을 정치적 해방운동에 귀착시키는 정치신학이다. 해방신학자들은 교회란 사회의 일부이며 교회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암암리에 억압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목적은 사회의 개조와 변혁이며 이를 위한 교회의 제도적 힘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페니 러녹스, 『민중의 외침』이 부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3), 383.

4) 콜롬비아 출신인 까밀로 토레스 신부(Camillo Torres)(1929-1966)는 루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질곡을 깨닫고, 가톨릭 교회가 사회현실과 민중들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인식하게 된다. 철저한 행동가였던 그는 해방신학을 평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신부복을 벗고 게릴라 군에 합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66년 콜롬비아 정규군과의 첫 접전에서 37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곧, 라틴 아메리카의 좌익 세력들로부터 순교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페니 러녹스, 53)

말한다. “나는 2년 이상을 숨어 살아야 했어. 우리의 가방 속에는 신학서적을 넣을 자리가 없었어.(I have had more than two years in hiding and we have to travel light. There is no room in our packs for books of theology.)”(HC 285)<sup>5)</sup> 이 대목 역시 체 게바라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즉, 게바라 역시 의사의 신분으로 그의 가방 속에 의약품을 넣어야 했지만 게릴라전의 쫓기는 상황에서 약품 대신 탄약을 선택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한편 『몬시노르 키호테』의 작품무대가 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는 남미만큼 치열한 상황은 아니지만 살벌한 정치현실이라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수십년간 독재정권을 유지해 온 프랑코(Franco)가 1975년 사망하자, 새로 왕위를 물려받은 카를로스(Carlos) 국왕은 전국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등 “민주화의 길”을 선언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산초의 경우도 그 선거의 결과로 라만차(La Mancha)지역의 시장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상황은 과거 프랑코 시절에 기득권을 누리던 보수반동세력들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과 사회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반동정치를 시작하게 된다. 그 결과 스페인은 다시 민주세력과 반동세력의 대립의 장으로 바뀌며 권력은 반동세력의 몫으로 여전히 남게 된다.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경찰의 모습은 긴장된 당시의 정치상황을 가장 잘 보여준다. 키호테 신부와 산초가 자꾸 경찰을 의식하고 피하고자 하는 것도 무의식적인 정치적 피해의식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그린의 작품배경을 이루는 그린랜드들은 주지하다시피 항상 정치적으로 긴장된 장소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독재정치가 나타나고 민중들은 정치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린이 세 작품의 배경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그 무대로 삼은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마리아 꾸또와의 대답에서 “내가

---

5) 본 논문에서 『명예영사』는 다음 책에서 인용하고 이후 본문의 인용에는 위 인용문의 표기처럼 책 제목(HC)과 쪽수만을 밝힌다. Graham Greene, *The Honorary Consul* (London: The Bodley Head Ltd., 1973)

왜 하이티, 쿠바, 중남미 같은 나라에 이끌리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곳의 정치상황은 단순히 정당이 바뀌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정치에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기 때문이다”(217)라고 밝히고 있다.

그린은 정치에 항상 관심이 많았다. 오락물의 형식을 빌고 있긴 하지만 그가 쓴 많은 정치소설들은 격변하는 정치현실에서의 쫓고 쫓김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종교소설에 있어서도 그의 작품무대는 항상 정치적인 관점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 특히 그는 『또 다른 인간』(*The Other Man*)<sup>6)</sup>에서 “나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정치적 행동이다. 난 나의 글을 통하여 사람들을 돕거나 옹호하거나 공격해왔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Allain 77-78).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부분은 그러한 정치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교회 역시 그린랜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영광』에서의 교회는 혁명정권에 의해 철저히 탄압받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소설 속에서 위스키신부는 탄압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 다니며, 호세 신부의 경우는 정권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사제직을 포기하고 평범한 민간인으로 살기로 타협한다. 한편 『명예영사』에서 교회는 민중의 고통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오히려 권력에 야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반발로 리바스 신부는 사제직을 버리고 게릴라조직에 들어감으로써 해방신학적 입장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리바스 신부를 통하여 그린은 교회와 권력의 야합에 대해 비판한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몬시뇨르 키호테』에 이르러서는 타락과 교조화의 전형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존의 소설들과는 다소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

6) 앞으로 본고는 마리 프랑소아즈 알랭(Marie-Francoise Allain)의 대담집 『또 다른 인간』(*The Other Man*)을 자주 인용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린의 이 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작품세계와 사상에 대해 밝힌 글이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교회의 타락한 모습은 마치 돈 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듯 키호테 신부가 성모축일행사의 대열을 향하여 돌진하는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You, you . . .” Father Quixote began, but the right word failed him in his anger. “Put down Our Lady. How dare you,” he told the priest, “Clothe her like that in money? . . . I have the authority of any Catholic to fight blasphemy.”(MQ 198)<sup>7)</sup>

위 인용문에서처럼 소설 속의 교회는 돈 많은 멕시코인들의 사유물로 전락해버린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제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돈을 받고 거래하듯이, 성모상을 메고 행진하는 자리를 돈의 액수에 따라 정한다는 말에 키호테 신부는 분노한다. 그는 행렬을 뚫고 나가 돈으로 치장된 성모상을 가로막고 서서 지폐를 찢어 날려버린다. 이에 흥분한 군중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지며 축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그린은 이렇게 키호테 신부를 통하여 교회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윤리신학에 대한 냉혹한 비판을 통하여 교회의 교조화를 지적하고 비판한다. 특히 교회가 프랑코 정권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보냄으로써 혜택을 받아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은 『명예영사』에서 리바스 신부가 정권과 결탁한 교회를 비판하며 분노하는 장면과 아주 흡사하다.

결론적으로, 그린의 설정한 그린랜드는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의 지역이다. 이를 통해 그린은 그린랜드를 그의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고 대변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으며, 또한 종교적으로는 이 곳이 바로 원죄에 물든 인간세상이며, 동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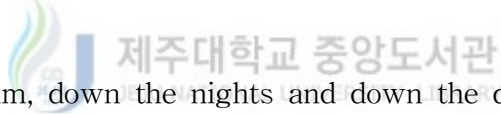
---

7) 본 논문에서 『몬시노르 키호테』는 다음 책에서 인용하고 이후 본 논문의 인용에는 위 인용문의 표기처럼 책 제목(MQ)과 쪽수만을 밝힌다. Graham Greene, *Monsignor Quixote* (London: The Bodley Head Ltd., 1982)

### III. 종교적 상징성과 의미

#### A. 천국의 사냥개

‘천국의 사냥개(The Hound of Heaven)’는 프랜시스 톰슨(Francis Thompson)<sup>1)</sup>이 쓴 시의 제목이다. 이 시는 종교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절대자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결국은 절대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간이 세속적으로 많은 갈등과 유혹을 겪으면서 신앙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신의 은총 속에 신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I fled Him, down the nights and down the days;  
I fled Him, down the arches of the years;  
I fled Him, down the labyrinthine ways  
Of my own mind; and in the mist of tears  
I hid from Him, and under running laughter.  
Up vistaed hopes I sped;

---

1) 프랜시스 톰슨(Francis Thompson)(1859~1907)은 늘 가난에 시달려 떠돌이 생활을 하였으며 한 때 마약에 의지하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는 신의 영역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했지만,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신과의 놀라운 만남의 체험을 통하여 신의 현존을 깨닫는다. 따라서 ‘천국의 사냥개’는 신의 넘치는 사랑을 체험한 톰슨 자신의 이야기이다. 이 시는 또한 인간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노래한 시편 139편의 주제와 매우 흡사하다.

*The Hound of Heaven*:<<http://www.vds.net.au/jdsilby/hound.htm>>

And shot, precipitated,  
 Adown titanic glooms of chasmed fears,  
 From those strong Feet that followed, followed after.  
 But with unhurrying chase,  
 And unperturbed pace,  
 Deliberate speed, majestic instancy,  
 They beat—and a Voice beat  
 More instant than the Feet—  
 “All things betray thee, who betrayed Me.”  
 I pleaded, outlaw-wise,  
 By many a hearted casement, curtained red,  
 Trellised, with intertwining charities  
 (For, though I knew His love Who followed,  
 Yet was I sore adread. . . .  
 Rise, clasp My hand, and come  
 Halts by me that footfall:  
 Is my gloom, after all,  
 Shade of His hand, outstretched caressingly?  
 “Ah, fondest, blindest, weakest,  
 I am He Whom thou seekest!  
 Thou dravest love from thee, who dravest Me.”

(*The Catholic Anthology*, 327-331)

위의 시에서처럼 인간은 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기 위해 그의 추적을 피해 다니지만, 신은 오히려 그런 인간의 탈선과 방황을 참고 기다려주며 그에게 영혼의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있다. 그리는

알랭(Allain)과의 대담에서 “아직도 천국의 사냥개에게 쫓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녀가 물었을 때 그 역시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과 방황을 겪었지만 마침내 신에게 속하게 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신의 현존을 많이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가 항상 내 발목을 붙잡아주기를 원한다. 나에게 있어서 신이란 추적자라기보다 내 삶의 결정적 시점에서 큰 도움과 영향을 준 존재로 생각한다. 이는 단지 내가 이룩한 직업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복의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내 삶은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우연한 사건들에 의해 갑작스레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나는 삶이란 미로 속에서 나를 이끄는 어떤 실타래를 감지하고 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놓여진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의 통제인 듯하다. 이 힘은 나의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보고 있다.(154)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의 강조하고 있는 점은 그가 사냥개로 부터의 쫓김 속에서도 결국은 신앙을 등지거나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이다. 즉 그린의 생각하는 천국의 사냥개는 단순히 그를 붙잡는 감시자가 아니라 바로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종교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계속 갖고 있지만 오히려 신앙심은 깊어지는 것 같다. 나는 오랜 불신의 세월 속에서도 신앙을 근근히 지켜왔다. 신앙은 내 존재의 근간이자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다.(Allain 162-163)

그린의 소설에서 천국의 사냥개에 대한 상징성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쫓고 쫓기는 자의 비유는 그의 작품 — 특히 『제 3의 사나이』(*The Third*

Man)를 비롯한 그의 오락물들 -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이 사건의 전개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있다. 이는 그의 종교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인물들의 쫓고 쫓기는 관계가 소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린의 이러한 기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종교소설은 역시 『권력과 영광』이다. 이 소설에서 위스키 신부는 시작부터 소설의 막바지까지 경위에게 쫓겨다닌다. 많은 독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비평가들조차 소설에서의 쫓고 쫓김의 관계를 위스키 신부와 경위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위스키신부가 도망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경위가 아니라 그의 양심과 교회의 권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자인 신으로부터이다.

위스키 신부는 마리아(Maria)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브리지따(Brigitta)라는 딸을 낳고 위스키를 즐겨 마시는 등 기존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철저히 타락한 사제이다. 그런 자신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는 신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고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나무 뒤에 몸을 감추듯 자꾸 숨으려 한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양심과 교회 그리고 신으로부터의 도피이며 꾸준한 탈출시도이다. 다만 그것이 외형적으로는 경위라는 대상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탈출시도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바로 위스키 신부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사냥개이다. 그는 항상 도피하고 숨으려 하지만 결국은 사제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죽음의 길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사냥개를 통한 신으로의 올바른 회귀인 것이다.

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위의 추적과 위스키 신부의 숨막히는 도망과정이다. 그러한 쫓기는 관계는 위스키 신부가 미국인 강도에게 종부성사<sup>2)</sup>를 주어야 한다는 혼혈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섰다가 경위에게

---

2) 가톨릭 교회의 칠성사 중의 하나로써, 병이나 고령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들



불잡히게 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되어 나타난다. 위스키신부가 스스로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쫓는 자가 되고 경위는 쫓기는 자가 된다. 이는 곧 “위스키 신부가 회귀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도망과 추적의 상황은 역전되어, 신부는 마침내 쫓는 자가 되고 자신의 신념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DeVitis 78).

뿐만 아니라 핏박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위스키 신부의 입에서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노래 가락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회귀의 발길을 돌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무슨 가락 하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가락이었다. ‘나는 뜰에서 한 송이의 장미꽃을 보았네’(He began to whistle a tune - something he had heard somewhere once. ‘I found a rose in my field.’)”(PG 180) 항상 긴장되고 쫓기는 그에게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권력과 영광』 전체를 통해 오직 이 장면 뿐이다.

반면에 경위는 오직 신부를 붙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의 모든 관심은 위스키 신부를 붙잡음으로써 우매한 가톨릭 사상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중들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선도하는 데에 있다. 그는 계속 신부를 쫓아다니고 마침내 그를 잡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그가 잡은 것은 신부의 육체였을 뿐,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그가 위스키 신부에게 쫓기는 처지로 바뀌게 된다. 즉 경위가 위스키 신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항상 경위는 쫓는 자였고 위스키 신부는 도망치는 자였다. 그러나 위스키가 회귀를 결심하는 순간부터 쫓고 쫓기는 관계가 역전되어 신부가 경위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로서 뭐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 .”(You aren't a bad fellow. If there's anything I can do for you . . .)”(PG 201), “오늘밤 같은 때 혼자 있기는

---

을 도와주는 성사이다. 중부성사를 받으면 죽음을 앞둔 병자의 죄가 사해지고 위로를 받게 되며, 대죄 중에서 고백성사를 받지 못했을 때 통회하면 그 죄까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박 도식, 『가톨릭 교리사전』 (서울: 가톨릭 출판사, 1985), 64.

안됐지. 원한다면 보통감방으로 옮겨드릴까(It's bad being alone on a night like this. If you would like to be transferred to the common sell.)”(PG 206)와 같은 경위의 말과 아래의 인용문은 경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As though now the last priest was under lock and key, there was nothing left to think about. The spring of action seemed to be broken. He looked back on the weeks of hunting as a happy time which was over now for ever. He felt without a purpose, as if life had drained out of the world. He said with bitter kindness(he couldn't summon up any hate of the small hollow man), "Try to sleep." . . . Then he sat at his desk and put his head upon his hands and fell asleep with utter weariness. He couldn't remember afterwards anything of his dreams except laughter, laughter all the time, and a long passage in which he could find no door.(PG 207)

이러한 변화는 경위가 위스키 신부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신부에게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연민을 느끼면서 극대화된다. 경위는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고 추구하던 정치적 개혁을 통한 이상사회 건설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대신 그 자리엔 정치이데올로기보다도 사제로부터 느낀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형상 경위는 위스키 신부를 쫓는 추적자로서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해내지만, 무신론자인 그가 추적 끝에 발견한 것은 신부의 육체가 아닌 사랑의 세계이다. 그것은 바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며 경위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사냥개이다.

한편 『명예영사』에서의 여러 장면에서 천국의 사냥개는 리바스 신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미국 대사를 계획대로 납치했다고 생각한 리바스 신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인질을 보살펴줄 의사를 데리러 간다. 그는 친구인 의사 플라르(Doctor Plarr)에게 인질을 보이면서 “우린 이 사람이 살아나길 바라네. 우리의 임무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We do not want him to die. Our job is to save lives.)”(HC 36)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플라르는 리바스 신부에게 그 인질이 미국 대사가 아닌 영국인 명예영사 포트넘(Fortnum)이란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레온, 자네는 직업을 잘못 택했어. 자넨 성직자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네. 자넨 납치범 노릇을 할 인물이 못돼.(Oh Leon, you have taken up the wrong profession. You would do better to go back to the Church. You are not made to be a kidnapper.)”(HC 36)

게릴라 전사로 변신한 후에도 리바스 신부는 이처럼 허술한 작전 수행과 혁명가로서의 한계를 친구에게 지적받는다.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도 말했듯이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는 전직 신부이다. 과제란 행동으로 인해 자칫 우리 눈에는 그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혁명분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리바스가 버린 것은 고통에 신음하는 민중을 외면하고 정치와 결탁한 타락한 교회이지 신앙 자체는 아니었던 것이다.

리바스 신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가 바라는 민중 속에 살아있는 참된 교회가 있었다. 그는 가난한 백성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진정한 교회를 언제나 꿈꾸었고 그것은 목숨을 건 게릴라 전투와 힘든 혁명활동 중에서도 그에게 위안을 주는 천국의 사냥개가 된다. 이런 그를 보고 플라르가 성직을 버린 자신을 동정하려 했을 때 신부는 이렇게 화를 내며 대꾸한다.

“I never told you I had left the Church. How can I leave the Church? The Church is the world. The Church is this *barrio*, this room.”(HC 250)

비록 리바스 신부의 몸이 성전에 머물러있지는 않지만 그에게 있어서 교회와 사회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결국 이 사회를 위해 싸우는 것은 곧 신의 뜻을 실현하는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는 늘 마음 깊이 자신이 사제란 사실을 간직하며 살았다.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유달리 민감했던 그가 그의 모태인 교회로부터 이탈한 후 겪는 딜레마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Kulshrestha 176).

그러므로 리바스 신부 역시 파계 후에도 늘 사제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며 천국의 사냥개의 쫓김을 당해온 인물이다. 그는 파계한 사제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동료들과 부인을 위해 미사를 드리며, 또한 게릴라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구 플라르의 죽음을 함께 해주는 사랑의 길을 택함으로써 천국의 사냥개에 의해 결국 신앙에 귀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권력과 영광』과 『명예영사』에서 위스키 신부와 리바스 신부는 결국 사제직을 버리지 못한다. 『권력과 영광』에서 코럴(Coral)이 신부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했을 때도 “나는 사제란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마치 배냇점처럼 말이야(It’s impossible. There’s no way. I’m a priest. It’s out of my power. Like a birthmark.)”(PG 40)라고 대답하는 부분이나, 『명예영사』에서 리바스 신부에게 플라르가 “한 번 신부가 된 자는 영원히 신부이다(Once priest, always priest.)”(HC 242)라고 말하는 부분이야말로 사제는 결국 신앙으로 귀의하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이며, 모든 존재는 천국의 사냥개에 의해 신의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 B.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성경의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구절<sup>3)</sup>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뒤이어 논의할 “선과 악”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선악의 문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면 양과 염소는 최후의 심판에서의 선과 악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보다 강하며 그 심판의 주체는 목자(절대자)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의미와 상징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린의 사상에 있어서 소위 “염소”로 표현되는 죄인들에 대한 그의 관점은 과연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소설에는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죄인은 있지만 악인은 없다. 즉 염소는 존재하지만 악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세 편의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구체적인 악의 모습은 “경찰”이다. 『권력과 영광』에서 경위는 비록 위스키 신부를 추적하며 그를 잡기 위해서 양민을 인질로 잡고 학살하긴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의도는 민중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를 악인으로만 볼 수는 없다. 『명예영사』에서 리바스 신부와 플라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령 페레즈(General Perez)도 역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범인색출에도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대령 역시 소설 상에서 결코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몬시뇨르 키호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3)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마태오복음 25:31-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떨치며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게 되면 모든 민족들을 불러 놓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갈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자리잡게 할 것이다. . . . 그러면 임금은 ‘똑똑히 들어라.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하고 말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별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경찰도 앞의 두 소설과 마찬가지로 키호테 신부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결코 악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린의 인간관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그린의 인간사회에 는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그린의 소설에 등장하는 염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력과 영광』에서의 염소의 모습은 위스키 신부의 딸 브리지따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위스키 신부는 브리지따를 본 순간 사랑과 연민을 느끼지만 반면에 브리지따는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신부를 대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탓에 어린 나이에 “마치 썩어 가는 과일 속에 작은 점이 생기듯이 (like the small spot of decay in a fruit)”(PG 81)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을을 떠나가는 날 쓰레기장에서 위스키 신부를 기다리며 그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딸 브리지따에게 위스키 신부는 절규하며 말한다.



“I love you. I am your father and I love you. Try to understand that.” . . . He said, “I would give my life, that’s nothing, my soul . . . my dear, try to understand you are so important.” . . . “my child, you have all the angels of heaven.”(PG 82)

---

4) 이 점에 대해 쿨슈레스타는 “그린에게 있어서, 인간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기도 하고 동시에 악하기도 하다(For Greene, man is not good or bad but good and bad). 따라서 주인공의 행동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묘사된다. 그들은 나약해서 쉽게 죄를 짓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J. P. Kulshrestha, *Graham Greene the Novelist* (Delhi: Macmillan, 1977), 225.

이처럼 타락한 딸 브리지파에 대한 위스키 신부의 염려와 기도는 그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 절정에 달한다.

“Oh, God, help her. Damn me, I deserve it, but let her live for ever.” . . . He began to weep; it was as if he had to watch her from the shore drown slowly because he had forgotten how to swim.(PG 208)

신부의 이러한 태도는 딸에 대한 극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신의 목숨과 영혼을 바쳐서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다. 그는 추상적 사랑을 외치는 사제가 아니라 딸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의 다른 인물들에게도 적용된다. 우선 자기를 팔아 넘기기 위해 끈질기게 따라 다니는 음흉하고 가증스런 혼혈인에게 위스키 신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혼혈인이 몸이 아팠을 때는 연민을 느끼며 그를 보살펴준다.

Slowly, slumped over the pommel, the half-caste became visible, the yellow canines jutting out of the open mouth; really, the priest thought, he deserved his reward — seven hundred pesos wasn't so much, but he could probably live on it — in that dusty hopeless village — for a whole year. . . . He held the half-caste firmly in the saddle and walked on. His feet were bleeding.(PG 100)

위스키 신부의 이러한 행동은 미국인 강도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위스키 신부는 그를 모른다. 그러나 혼혈인한테서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

을 듣자마자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 나선다. 신부는 그에게 말한다. “자네는 사람들을 죽였어. 아마 어린애들까지도. 그러나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다만 이 세상에 얼마 안되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이야. 이미 그 일은 끝났어. 자네는 그것을 이 오두막 속에 다 떨구고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어. . . .(You have murdered men – children perhaps . . . . But that need not be so important. It only belongs to this life, a few years – it’s over already. You can drop it all here, in this hut, and go on for ever. . . .)”(PG 189) 이 소설에서 위스키 신부가 구원하고자 했던 죄인들은 수없이 많다. 물론 그들을 전부 염소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브리지마와 경위, 혼혈인과 미국인 강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위스키 신부는 그들의 구원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권력과 영광』에서 염소가 상징적으로 비유된 것과는 달리, 『몬시뇨르 키호테』에서는 양과 염소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설의 앞부분에서 염소와 양의 이야기는 기존의 교회 교리와 그 획일화된 맹목성을 반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양은 어리석은 짐승이군요. 예수가 왜 양떼를 우리 인간에 비유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Sleep are stupid beasts. I have never understood why the founder of your faith should have compared them with ourselves.)”(MQ 49), “염소는 양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을 다 가지고 있을 뿐더러 암소의 좋은 점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The goat has all the uses that a sheep has and in addition many of the virtues of a cow.)”(MQ 49), “왜 하필이면 양이란 말인가? 왜 그는 그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하필이면 양의 상징을 선택한 것일까?(All the same, why sheep? Why did He in His infinite wisdom choose the symbol of sheep?)”(MQ 50) 등 산초와 키호테의 논쟁 속에서 그린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고 있다. 즉 그는 가톨릭적 관점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천년 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음을



비꼬고 있다. 동시에 “‘주는 나의 목자시도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양이라면, 왜 우리가 목자를 믿어야 되는거죠? 목자가 우리를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후에 우리를 푸줏간에 팔기 위함이 아닌가요? (‘The Lord is my shepherd’ But if we are sheep why in heaven’s name should we trust our shepherd? He’s going to guard us from wolves all right, oh yes, but only so that he can sell us later to the butcher.)”(MQ 49)라는 산초의 날카로운 지적은 마르크시즘의 시각<sup>5)</sup>에서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소설의 후반부에 나오는 염소의 대목은 키호테 신부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무의식 속에서 중얼거리는 독백인데, 이 부분은 『몬시뇨르 키호테』에서 그린의 인간관을 구성하는 핵심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주교님, 양은 코끼리를 길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교님의 기도 중에 염소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Excellency, a lamb may be able to tame an elephant, but I would beg you to remember the goats in your prayers.)”(MQ 212)라는 장면과, 키호테 신부가 정신을 잃은 가운데 드리는 마지막 미사에서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나 염소는, 염소는 . . . (Lamb of God, but the goats, the goats . . . )”(MQ 216)이라는 독백이다.

이 장면에서의 양과 염소는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바로 그 양과 염소이다. 대부분의 사제들은 모든 인간들이 의인(양)이 되기를 바라며 그들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반해, 키호테 신부는 죄인(염소) 조차도 같은 인간이기 때

---

5) 이 대목에서의 마르크시즘적 시각이란 양과 염소, 그리고 목자의 관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목자는 자본가(혹은 고용주)이며 양은 노동자이다. 목자(자본가)가 양(노동자)을 잘 돌봐주는 것은 진정 양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양의 털을 착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이는 공산주의자인 산초를 통해서 기존 가톨릭적 시각의 편협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린의 의도이다.

문에 인간은 모두 용서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그의 무의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염소를 염려하는 키호테 신부의 독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린의 이 소설에 이르러 완숙한 포용의 정신,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이 소설에서의 위 두 대목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악인은 없으며, 비록 현세에서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모두 다 용서받고 양과 염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린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린의 관점은 『몬시뇨르 키호테』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마르크스나 스탈린, 그리고 프랑코 등에 대한 언급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그들이 저지른 죄는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선한 의도를 지닌 그들의 “동기”이며 죄를 모두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그린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프랜시스 키클(Francis Kunkel)은 “그린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며 특별히 죄인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소질을 갖춘 죄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옴아매는 죄악과 치열한 영적 투쟁을 벌인다. 그는 이런 면에서 계명을 잘 지킨다고 으시대며 경건한 척 하는 신자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죄인은 오직 신만이 그를 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은 죄 자체를 찬양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겸손, 그리고 신의 자비와 힘을 찬양한다”(58)라고 분석하면서 죄인(염소)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바로 그린의 입장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 C. 선과 악

선과 악의 혼재 문제는 그린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

다. 이 문제는 “그린랜드”와 “양과 염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린의 작품의 무대로 설정하고 있는 그린랜드는 항상 선과 악이 혼재된 세상이다. 그의 소설에는 절대선도 절대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이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설정하는데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린의 생각하는 선과 악의 혼재는 결국 인간사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린의 늘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민중들이 박해받는 사회에서는 악의 모습이 세상을 지배하고 선의 모습은 그늘 속에 숨겨져 있다.

이미 많은 비평가들이 선과 악의 혼재를 그린의 소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위대한 성인도 악에 빠질 소지가 있고 아주 사악한 인간도 고결함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린은 죄인과 성인은 늘 마주보고 있다고 여긴다. 둘 사이에는 어떠한 단절이나 틈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그는 믿는다 (Alan Warren Friedman 133). 또한 폴 오프리(Paul O'Prey)는 “그린은 늘 정신적 경계선(소위 ‘위험한 벼랑(The dangerous edge)’에 놓여있는 인물 - 성스런 무신론자,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불가지론자, 죄 많은 성인들 - 에게 이끌리며 이들을 통하여 역설(paradox)의 세계를 구현한다”(12)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린 역시 『생활의 단편』(*A Sort of Life*)에서 선과 악이 혼재된 자신의 작품세계를 인정하면서, 그의 소설 세계를 대변해줄 구절로 시인 브라우닝(Browning)의 ‘브라우그램 주교의 변명(Bishop Blougram's Apology)’을 선택했다(최 재석 1992, 25).

Our interest's on the dangerous edge of things.  
The honest thief, the tender murderer,  
The superstitious atheist, demirep  
That loves and saves her soul in new French books

We watch while these in equilibrium keep

The giddy line midway. . . .

(‘Bishop Blougram’s Apology’, II. 395-400)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곧 선과 악의 혼재이다. 위의 시에 언급된 사람들 - 정직한 도둑, 자상한 살인범, 미신적인 무신론자 - 처럼 선과 악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선이 악으로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악이 선으로 되기도 한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혹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한 쪽 발만 잘못 디디게 되면 “위험한 벼랑(dangerous edge)”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더욱 용서받아야 한다. 이런 관점이야말로 그린의 세상을 보는 기본적 시각이다. 이런 관점은 마치 괴테(Goethe)의 파우스트(Faust)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케 한다. 파우스트가 죽은 후 그의 영혼을 거두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데, “삶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간 사람의 영혼이라면 그가 비록 생전에 어떠한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노래한다.

그러나 그린의 소설에서 비평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선과 악의 혼재 문제와 달리, 『명예영사』에 나타나는 선과 악이 혼재된 신의 세계에 대한 부분은 교회의 정통적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즉 그린은 암담한 현실에 침묵하는 교회와 신에 실망한 리바스 신부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신의 악을 믿네. 그러나 나는 그의 선도 믿고 있어.(I believe in the evil of God but I believe in His goodness too.)”(HC 284), “내가 믿는 신은 모든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해.(The God I believe in must be responsible for all the evil as well as for all the saints.)”(HC 285) 즉 그는 신의 세계도 인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악한 면을 가지고 있으며, 신은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과 신의 관계는 진화론적 관계로

서 인간이 악하면 신의 악도 커지고, 인간이 선해지면 신의 선도 커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very evil act of ours strengthens His night-side, and every good one helps His day-side. We belong to Him and He belongs to us. But now as least we can be sure where evolution will end one day – it will end in a goodness like Christ’s. It is a terrible process all the same and the God I believe in suffers as we suffer while he struggles against Himself – against His evil side.”(HC 286)

이와 같은 신의 세계에 대한 그린의 관점은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단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의 세계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의 세계는 신의 세계에서 쫓겨난 악마들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린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는 “나는 소설가로서 픽션을 쓰는 사람이지만, 신앙을 포교하는 선교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에겐 ‘교회에 불충’(disloyal to the church)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나의 주인공들은 대개 신앙에 대해 회의하거나 혹은 불신하는 자가 많다”라고 밝히고 있다(O’Prey 8).

한편 우리는 『명예영사』에 나타난 신의 악한 면이 리바스 신부의 혁명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즉 불의에 침묵하거나 사회모순을 만든 것도 신이며 리바스 신부가 충을 들고 투쟁하게 만든 것도 같은 신이라는 논리이다. 리바스 신부의 그러한 입장은 아래의 인용문에 잘 나타나 있다.

“All the same, when you shoot Fortnum in the back of the

head, are you sure you won't have a moment's fear of old Jehovah and his anger? 'Thou shalt not commit murder'”

“If I kill him it will be God's fault as much as mine.”

“God's fault?”

“He made me what I am now. He will have loaded the gun and steadied my h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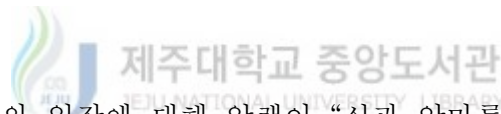
“I thought the Church teaches that he's love?”

“Was it love which sent six million Jews to the gas ovens? . . . He created them.”

“I have never heard a priest blame God for things like that before.”

“I don't blame Him. I pity Him,” Father Rivas said.

(HC 276)



이와 같은 그린의 입장에 대해 알랭이 “신과 악마를 혼동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명예영사』에서 밝혔듯이 원래 신과 악마는 한 인물이다. 신은 밝고 어두운 양면을 가지고 있고 그가 절대선을 향해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착한 행동에 의한 것이다”(155). 또한 그린은 교회가 그를 이단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가톨릭 작가가 아니며 - 이는 그린의 가장 혐오하는 말이다 - 가톨릭 신자인 소설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Friedman 13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 세계는 자신의 종교와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의 등장인물이 종교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일은 불가피하다(Judith Adamson 133). 이에 대해 그린은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그는 전지전능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영벌에 처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은총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Allain 151).

그러므로 그린의 생각하는 인간세상은 항상 선과 악이 뒤섞인 곳이며 이는 작품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간세계를 구원할 신의 세계도 역시 선과 악이 혼재된 세상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교회와 그린의 입장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그린의 태도는 인간사회와 마찬가지로 신의 세계도 진화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신이 갖고 있는 무한한 은총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

#### D. 마지막 미사

그린의 종교소설에 있어서 마지막 미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소설 속의 마지막 미사에 대한 분석은 사제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도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린은 그의 『논문집』(*Collected Essays*)에서 자신은 가톨릭작가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며 또한 소설을 통하여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의 소설 속의 마지막 미사의 장면을 통하여 그의 종교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권력과 영광』, 『명예영사』, 『몬시노르 키호테』에 묘사되고 있는 마지막 미사는 한결같이 “꽃김의 마지막 단계, 혹은 죽음 직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지막 미사는 『명예영사』를 제외하고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의식의 상태”라는 상황설정은 그린의 그의 종교성을 보여주는 적합한 수단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로저 셰록(Roger Sharrock)은 “어렸을 때 정신 치료를 받았던 그린은 그의 내면세계를 보다 진실하게 알릴 수 있는 매개체로 ‘꿈’을 작품 속에 자주 이용하길 좋아한다”(124)고 풀이하고 있다.

마지막 미사에 나오는 상징성과 의미들을 통하여 그린은 그가 생각하는 종교의 순수성과 지향점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린은 그의 종교소설들을 통하여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교조화를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미사에서의 형식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치중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가 초기교회와 같은 순수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종교가 절차나 형식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정 순수한 신앙 그 자체로 회귀해야 한다는 그린의 주장이 소설 속의 마지막 미사의 장면들을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

먼저 『권력과 영광』에 나타나는 미사 장면들을 살펴보면, 이 소설에는 미사장면이 세 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쫓기는 상태에서 위스키 신부가 딸 브리지타의 집에서 숨어서 드리는 미사이다. 두 번째는 치아파스에서 혼혈인이 다시 찾아오기 전에 드리는 미사인데, 이 소설의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사이다. 그리고 마지막 미사는 감옥에서 위스키 신부가 죽기 직전 꿈속에서 보는 미사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미사는 다른 미사와 달리 위스키신부가 집전하는 미사가 아니며 그는 단지 미사의 방관자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속의 미사야말로 이 소설에 나오는 미사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He had a curious dream. He dreamed he was sitting at cafe table in front of the high altar of the cathedral. About six dishes were spread before him, and he was eating hungrily. . . . A priest passed to and fro before the altar saying Mass, but he took no notice: the service no longer seemed to concern him. . . . But he sat on, just waiting, paying no attention to the God over the altar, as though that were a God for other people and not for him. Then the glass by his plate began to fill with wine, and looking up he saw that the child from the



banana station was serving him. She said, “I got it from my father’s room.”

“You didn’t steal it?”

“Not exactly,” she said in her careful and precise voice.

He said, “It is very good of you. I had forgotten the code – what did you call it?”

“Morse.”

“That was it. Three long taps and one short one,” and immediately the taps began: the priest by the altar tapped, a whole invisible congregation tapped along the aisles—three long and one short. He asked, “What is it?”

“News,” the child said, watching him with a stern, responsible and interested gaze.(PG 209)

위의 장면에 대한 비평의 초점은 마지막 미사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과 그 의미에 맞추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린의 세 소설 중 유독 이 소설에서만 미사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린은 소설 속의 단어나 문장들을 통하여 의미와 상징성들을 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짧은 꿈속의 미사 장면에 잘 표현되고 있다. 이 꿈속의 미사에 대해 마리아 꾸토(Maria Couto)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위스키 신부의 꿈에 한때 자기를 숨겨주었던 코렐이 다시 나타난다. 그녀는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준다. 그들은 모르스 신호(Morse Code)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암호가 뜻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신뢰이다. 꿈속에서 미사는 계속 거행되지만 위스키 신부는 제단 위의 의식은 안중에 없다. 오직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을 먹여주는 소녀 뿐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어떤 종교나 이념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

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있다”(74).

위에서 언급된 “모르스 신호”외에도 “여섯 접시”와 “포도주”, “아버지의 방”, “뉴스”등 꿈속의 미사 장면에 쓰여진 어휘들은 상징성을 갖는다. 특히 “모르스 신호”는 꾸또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의 신뢰이다. 이 특별한 신호를 통하여 차디찬 감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위스키 신부에게 생명과 부활의 진리가 전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이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good news), 곧 “복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소설에서는 소녀를 통하여 “뉴스”라고 표현되고 있다(Sharrock 122). 한편 “여섯 접시”의 의미는 성서에서 “7”이 신성한 신을 의미하는 완성의 숫자인 반면, “6”은 신으로부터 소외되고 동떨어진, 완성되지 못한 위스키 신부의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잔에 채워지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성혈을 가리킨다.

그리고 코럴이 물을 떠온 “아버지의 방”은 처형을 기다리며 쓸쓸하게 죽어 가는 위스키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암시<sup>6)</sup>이다. 이 암시의 말은 위스키 신부가 만난 소설 속의 등장인물 중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한 코럴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 또한 위스키 신부가 미사에서 방관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로저 세록은 “교회의 감실에 계시고 미사 때에 성체의 모습으로 봉헌되는 주님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스스로를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위스키 신부에게는 그 만을 위한 숨은 신(a hidden God)이 있을 것이란 점을 암시하는 것”(125)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몬시뇨르 키호테』의 마지막 미사 역시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이지만 『권력과 영광』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미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대단히 감동적이다. 그린의 종교소설을 통틀어 이 부분만큼 종교의 순수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은 없을 것이다.

---

6) 요한복음 14:2의 구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안식처를 의미한다.

키호테 신부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경찰에게 쫓기는데, 타고 가던 그의 차 로시난테(Rocinante)가 수도원 벽을 들이박아 중태에 빠지게 된다. 헛소리를 하며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신부는 혼자 무의식 속에서 제단으로 걸어가 미사를 드린다.

He walked firmly to the altar and began to say the words of the old Latin Mass. . . . Father Quixote seemed totally unaware that there was no Host, no paten waiting on the altar. He raised empty hands, "*Hoc est enim corpus meum,*" and afterwards he went steadily on without hesitation to the consecration of the non-existent wine in the non-existent chalice. . . . So it was he remembered the Our Father, and from there his memory leapt to the Agnus Dei,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He paused and shook his head. For a moment the Mayor thought he was waking from his dream. He whispered so softly that only the Mayor caught his words, "Lamb of God, but the goats, the goats." . . . but then he spoke again : "*Corpus Domini nostri*", and with no hesitation at all he took from the invisible paten the invisible Host and his fingers laid the nothing on his tongue. Then he raised the invisible chalice and seemed to drink from it. The Mayor could see the movement of his throat as he swallowed. . . . He remarked the Mayor standing a few feet from him and took the non-existent Host between his fingers; he frowned as though something mystified him and then he smiled. "*Companero,*" he said, "you must kneel, *companero.*" He came

forward three steps with two fingers extended, and the Mayor knelt. Anything which will give him peace, he thought, anything at all. The fingers came closer. The Mayor opened his mouth and felt the fingers, like a Host, on his tongue. “By this hopping,” Father Quixote said, “by this hopping,” and then his legs gave way. The Mayor had only just time to catch him and ease him to the ground. “*Companero*,” the Mayor repeated the word in his turn, “this is Sancho,” and he felt over and over again without success for the beat of Father Quixote’s heart.(MQ 214-7)

이렇게 길게 소설의 본문을 인용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 장면만큼 그린의 소설에서 성체성사에 담긴 많은 의미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부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어린 양, 그러나 염소는, 염소는 . . .(Lamb of God, but the goats, the goats . . .)”의 부분은 본 논문의 “양과 염소”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본 논문 28-29 참조)

그러나 이 소설의 백미, 즉 가장 감동적이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있지도 않은 성체와 성혈을 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장면이다. 그린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종교적 관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린의 종교소설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가톨릭 비평가들에게서 이단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가 기존의 교회의 체계와 형식주의에 대해 강한 불만과 비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그 중에는 기존 교회의 틀을 위협할 만큼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다. 특히 그의

---

7) 소설가의 역할에 대해 그린은 “소설가의 임무는 로마가톨릭시즘 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단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의 도그마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의문을 던지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A. A. DeVitis, *Graham Greene*, rev. ed., (Boston: Twayne Publishers, 1986), 8.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사제들의 모습은 기존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같이 비정상적이거나 환속한 사제들이다. 『권력과 영광』의 위스키 신부는 알콜 중독자에 숨겨놓은 딸까지 있다. 『명예영사』의 리마스 신부는 파계하여 결혼을 했고 더군다나 총을 들고 게릴라에 합류한다. 『몬시뇨르 키호테』의 키호테 신부는 공산주의자와 친하게 지내고 포르노 영화를 보기도 한다.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 그린은 기존의 교회질서가 갖고 있는 경직성과 교조주의를 역으로 강하게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제들보다 오히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위의 장면이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신성시하고 최고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미사에서의 “성찬예식”이기 때문이다. 미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고 받아먹는 이 행위야말로 현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며 상징이다. 이를 통해 교회(사제)는 신자들을 하느님과 연결시킨다. 『몬시뇨르 키호테』에서 이 장면이 앞서 지적했던 사제들의 타락한 모습보다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키호테 신부는 성체도 성혈도 없이 성찬전례를 행한다. 또한 있지도 않은 성체를 시장에게 주며, 시장은 이를 받아먹는다. 시장이 “있지도 않은 성체”를 영하자 키호테 신부는 “이렇게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으로써 . . . (By this hopping, by this hopping . . .)”라고 말하며 눈을 감는다. 이는 이제까지 무신론자였던 시장이 마침내 신의 세계에 귀의했다는 그의 믿음을 의미한다.<sup>8)</sup>

---

8) 원래 성체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면서, 이성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10세 이상), 중죄가 없어야 모실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성체를 신자에게만, 그것도 큰 죄가 없는 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큰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성체를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성체를 그린은 소설에서 유물론자인 시장에게 받아 모시게 한 것이다. 이는 기존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파격적인 이단으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그린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신앙세계로의 귀의일 것이다. 또한 이는 교회가 신앙의 본래적 목적인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어 본래의 모습을 잃어 가는 교회의 변질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며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린의 이러한 관점은 『명예영사』의 마지막 미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포위된 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긴박하게 드리는 마지막 미사에서 리바스 신부는 거의 모든 절차를 무시해가며 미사를 집전한다. 『명예영사』에서 리바스 신부는 부인 마르따(Martha)가 미사를 드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요구에 그는 마침내 미사를 드릴 것을 약속한다. 그 미사는 이미 죽은 동료들과, 이제 곧 죽음을 맞게 될 자신들을 위한 미사였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리바스 신부는 마르따의 간청 외에도 맹인 노인 호세가 자기 부인을 위한 병자성사를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이것은 신앙이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베어 있으며, 민중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가지는 마르따의 애원과 입관 전 부인의 병자성사를 달라는 노인의 간청을 “민중의 아편”이나 “미신적 행위”라고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리바스 신부의 모습이다. 만일 그 자신이 교회를 벗어나 혁명투쟁에 몸을 담은 게릴라 대원으로서 신앙을 버린 자였다면 리바스 신부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엄밀히 말해서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는 교회에 대해 거부하고 있을 뿐, 정작 신앙에 있어서는 여전히 천국의 사냥개에 쫓기고 얽매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리바스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에는 오직 마르따가 마을에서 미사를 위해 준비해온 포도주와 빵 부스러기, 성작으로 쓸 쪽박 하나, 성작 수건으로 쓸 행주 한 조각만이 있을 뿐이고, 그날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도 몰

라서 미사경이 그냥 펼쳐지는 대로 미사를 한다. 밖에서는 경찰이 그들을 포위한 채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 밖에 안 남았다고 계속 경고한다.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초조함에 쫓기며 계속 미사를 집전한다.

The priest lowered the gourd. He knelt and rose quickly. He seemed to be whipping the Mass to its conclusion with impatience. He was like a herdsman driving his cattle towards the byre before a storm burst.(HC 305)

『명예영사』의 미사는 앞서 분석한 두 소설과 달리 비록 시간에 쫓기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긴 하지만, 꿈이나 무의식 속의 미사가 아니라 동료들과 자신을 위한 직접적인 미사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미사는 비록 미사 도구나 절차가 다소 부족하고 생략되었다 할지라도 『권력과 영광』, 『명예영사』, 『문시뇨르 키호테』 세 소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미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린은 세 소설 중 이 소설의 미사장면을 가장 짧게 그리고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에 밀접한 미사인데도 이 소설에서는 다른 소설들에 비해 오히려 더 짧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체적 형식을 띤 미사보다는 오히려 무의식에 근거한 미사가 그린의 생각하는 순수한 미사의 본질을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리바스 신부는 미사에 있어서의 형식과 도구가 갖는 반민중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이미 우리 사회에는 그리스도가 행했던 가장 순수한 미사는 사라져버리고 교회와 사제들은 민중의 배고픔에는 아랑곳 않고 값비싼 포도주나 마셔댄다고 비판한다.

Our people do not starve—they wilt. The words used to stick on my lips — “Suffer little children.” . . . I distributed the Host — it’s not so nourishing as a good *chipa*—and then I drank the wine. Wine! Which of these poor souls had ever tasted wine? Why could we not use water in the sacrament? He used it at Cana. Wasn’t there a beaker of water at the Last Supper He could have used instead?(HC 144)

혹자는 리바스 신부가 사제의 신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드린 미사는 정식미사로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린의 작품 속에서 리바스 신부의 이러한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사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즉 “리바스는 교회를 등지고 나왔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마저 버린 것은 아니다. 그가 젖은 셔츠를 입은 채 오직 빵과 포도주, 몇 개의 초만으로 드리는 미사는 사체의 굳은 믿음을 나타낸다. 즉 성사란 미사 때 당연히 갖춰야 할 도구나 심지어 교회란 울타리(성전)가 없어도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O’Prey 133).

뿐만 아니라 로저 세록이 지적하듯이, “포위상태에서 급박하게 치러지는 미사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마을에서 위스키 신부가 은밀하게 드리는 미사를 연상시킨다. 당장 죽음을 목전에 둔 긴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구원의 희망인 미사예식은 거행된다. 비록 제의도 못 걸치고 강론도 생략되었지만 이같은 순수한 기독교주의는 『몬시뇨르 키호테』에 이르러 성체, 성혈도 없이 단지 몸짓만으로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정점에 달한다”(249). 이렇게 “키호테에 의해 밀떡과 포도주, 성체를 영할 사람도 없이 미사는 집전되고, 결국 비신자(non-believer)인 시장이 성체를 영한다. 이 장면은 파계한(non-believer) 리바스 신부가 죽음 직전에 게릴라대원들을 위해 드리는 미사를 연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미사를 통하여 이상과 현실이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을 연결 지으려는 그린의 시도로 보이기도 한다”(Sharrock 281).

결론적으로 그린의 소설에 나타나는 마지막 미사는 죽음을 앞두고 행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교회의 미사형식을 과감히 깨뜨림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격을 통하여 그린은 미사의 순수성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E. 고해성사

그린은 교회의 성사 중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Sharrock 122), 그 이유는 일곱 가지 성사<sup>9)</sup> 중 구체적으로 신과 인간이 서로 교감하고 연결되는 것은 바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서라는 확신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그린은 본 논문이 분석하고 있는 세 소설의 전개과정에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내용들을 부여하고 있다.

그린은 그의 소설 『권력과 영광』, 『명예영사』, 『몬시뇨르 키호테』에서 쫓기는 위기의 상황 혹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애쓰는 사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권력과 영광』에서 위스키 신부는 경위에게 잡힌 후 그에게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경위는 호세 신부(Father Jose)를 데리러 가지만 결국 호세 신부를 데려오지 못하고, 대신 위스키 신부에게 브랜디를 가져다준다. 감옥에서 위스키 신부는 브랜디를 마시며 혼자서 고해를 하려고 노력한다.

---

9) 가톨릭 교회의 일곱 성사(七聖事)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신품성사 그리고 병자성사를 말한다.

The priest put down the brandy-flask again and began some kind of a general confession, speaking in a whisper. He said, "I committed fornication." The formal phrase meant nothing at all: it was like a sentence in a newspaper: you couldn't feel repentance over a thing like that. He started again, "I have lain with a woman," and tried to imagine the other priest asking him, "How many times? Was she married?" "No." Without thinking what he was doing, he took another drink of brandy.

As the liquid touched his tongue he remembered his child coming in out of the glare: the sullen unhappy knowledgeable face. He said, "Oh God, help her. Damn me, I deserve it, but let her live for ever." This was the love he should have felt for every soul in the world. . . . After a while he began again: "I have been drunk - I don't know how many times; there isn't a duty I haven't neglected; I have been guilty of pride, lack of charity . . ." The words were becoming formal again, meaning nothing. He had no confessor to turn his mind away from the formula to the fact.(PG 207)

이 장면에서 그린은 고해성사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사제인 위스키 신부조차도 정작 고해해야 할 순간에 고해의 형식적 문구에 매몰되어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절망한다. 앞장에서 분석했듯이 마지막 미사에서 성체와 성혈이 없는 순수한 미사를 통하여 기존 교회체계의 지나친 제도화를 지적했던 그린은, 고해성사에 관해서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해하지 못하는 사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형식주의를 다시 비판하

고 있다. 그린의 이런 관점은 감옥의 장면에서 잘 나타난다.

The pious woman was whispering to him . . . She was saying, “Father, will you hear my confession?” . . . Somewhere against the far wall pleasure began again; it was unmistakable. . . . The pious woman said aloud with fury, “Why won’t they stop it? The brutes, the animals!”

“What’s the good of your saying an Act of Contrition now in this state of mind?”

“But the ugliness . . .”

“Don’t believe that. It’s dangerous. Because suddenly we discover that our sins have so much beauty.” . . . It was more difficult to feel pity for her than for the half-caste who a week ago had tagged him through the forest, but her case might be worse.(PG 130-131)

이 장면에서 여인은 신부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신앙심이 깊고 철저한 사람이다. 그녀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위스키 신부가 보속<sup>10)</sup>을 주는 동안 여인은 벽 쪽에서 들려오는 쾌락의 소리를 듣고 화를 낸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는 그 믿음이 깊은 여인을 혼혈인보다도 더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 장면에서의 위스키 신부는 마치 율법에만 철저한 바리사이파를 걱정하는 예수와 유사하다. 다시 말하면, 그린의 이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바로 바리사이파처럼 율법에는 철저하지만 인간적인 관용과 아름다움을 상실한 경직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

10) 보속이란 고백성사로 죄사함을 받은 죄에 해당하는 벌이다. 고백소에서 사제가 주는 보속은 고백성사를 완성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보속을 치루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박 도식, 66)

한편 고해성사에 관한 부분은 『명예영사』에 자주 묘사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바스 신부의 경우이다. 신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포트넘에게 은근히 고해성사를 하고 싶어한다. 포트넘도 리바스의 의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그를 돕고 싶어 하면서 말한다. “제가 해드릴 게 없나요, 신부님?(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Father?)”(HC 308), “내 느낌으로는 그(리바스)가 나한테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것같이 생각된 때가 있었어요.(I feel . . . Do you know there was even a moment when I thought he was going to confess to me.)”(HC 303) 그러나 리바스 신부는 자신의 인질이자 이제 어쩌면 그의 손으로 죽어야 할지도 모를 포트넘에게 고해를 하지 못한 채, 결국 총을 맞고 쓰러진 플라르에게 뛰어가다가 그도 역시 총을 맞고 플라르 옆에 누워 죽어가면서 친구에게 고해를 한다. 플라르가 리바스 신부에게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자기에게 왔느냐고 묻자, 리바스 신부는 임종자에게 신부로써 성사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I thought you might need me.”

“Why? What for?”

There was a long silence until Doctor Plarr asked rather absurdly. “Are you still there?”

A whisper came from behind him.

Doctor Plarr said, “I can’t hear you.”

The voice said a word which sounded like “Father.”. . .

“I am sorry . . . I beg pardon . . .”

“*Ego te absolvo,*” Doctor Plarr whispered in a flash of memory.(HC 316)

위스키 신부가 호세 신부의 거절로 결국 고해를 들어줄 신부를 구하지 못한 채 혼자서 고해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예영사』에서 리바스 신부는 친구인 플라르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점은 이 두 소설에서 고해성사에 대한 묘사는 여러 곳에 나오지만 정작 고해의 장면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은 사제들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고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고해의 내용과 장면이 그려지는 것은 사제들의 고해이며, 그 고해는 대부분 절망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고해의 의미는 사제가 일반신자들의 고해를 들어준다는 기존의 당연한 관점을 탈피하고, 오히려 사제의 고해를 부각시킴으로써 형식화되어가고 위선적이 되어 가는 기존교회의 틀을 그린 이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몬시뇨르 키호테』에서의 고해장면은 앞의 두 소설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소설에서 키호테 신부는 비밀경찰에 쫓기는 가운데 식당 화장실에서 어떤 장의사의 고해를 들어주게 된다. 그가 관에 붙은 황동 손잡이를 훔친 죄를 고백하며 신부의 보속을 원하자 키호테는 말한다.

“Don't worry about such little things. Go home and have a good sleep. Perhaps you have stolen. Do you think God cares so much about a small thing like that? He has created a universe. . . . don't feel so important. Say you are sorry for your pride and go home.”

The man said, “But please - my absolution.”

Father Quixote unwillingly muttered the unnecessary formula. . . . Father Quixote sat on the lavatory seat with a sense of exhaustion and inadequacy. He thought: I didn't say the right words. Why do I never find the right words? The man needed

help and I recited a formula. God forgive me. Will someone only give me a formula too when I come to die?(MQ 116-7)

앞의 두 소설과는 달리, 『몬시뇨르 키호테』에 그려지는 고해성사는 죽음을 앞에 둔 사제의 고해성사가 아니다. 절망적이지도 않고 사제가 신자에게 고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본질적으로는 사소한 일에도 죄의식에 빠지는 신자들과, 또 그 죄에 합당한 적절한 보속보다 틀에 박힌 사죄경을 반복하는 교회의 형식화에 대한 그린의 비판이고 반성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세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그린은 고해성사의 중요정보다는 그 절차와 관례에 치우치고 마는 교회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있다.

## F. 부활



부활은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부활은 가톨릭 신앙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가톨릭 신앙은 이미 그 기반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린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리 큰 비중을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린의 소설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그린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그린은 그의 소설에서 사후세계를 직접적으로 그리지도, 부활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다만 상징을 통하여 부활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린의 소설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부활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당사자를 통한 부활이 아니

다. 그보다는 “역사성을 띤 부활”의 형태를 띄고 있다. 여기서 “역사성”이라 함은 주인공이 죽은 후 그의 역할이나 위상을 대신해 줄 인물의 등장을 통해 주인공의 삶이 새롭게 이어짐을 의미한다.

먼저 『권력과 영광』을 살펴보면, 위스키 신부가 죽은 후 그 지역에 단 한 사람의 사제도 남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잠들어 있던 소년(루이스)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그가 문을 열자 낯선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신부였다.

The stranger said, “I have only just landed. I came up the river tonight. I thought perhaps . . . I have an introduction for the senora from a great friend of hers.”

“she is asleep.” the boy repeated.

“If you would let me come in,” the man said with an odd frightened smile, and suddenly lowering his voice he said to the boy, “I am a priest.”

“You?” the boy exclaimed.

“Yes,” he said gently. “My name is Father -” But the boy had already swung the door open and put his lips to his hand before the other could give himself a name.(PG 221)

이 부분은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과 함께 소설은 끝난다. 그린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신부의 등장을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으로 뒀다. 그것은 부활이야말로 가톨릭 신앙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명예영사』의 마지막 장면도 『권력과 영광』과 너무나 흡사하다. 플라르와 리바스 신부가 죽고난 후 포트넘은 아내 클라라(Clara)와 허탈하게 앉아 그들의 죽음을 잠시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그들은 새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There seemed at last to be a sort of communication between them and he tried hard to keep the thin thread intact.

“What shall we call the child, Clara?”

“If he is a boy - would you like Charley?”

“One Charley’s enough in the family. I think we will call him Eduardo. You see I loved Eduardo in a way. He was young enough to be my son.”

He put his hand tentatively on her shoulder and he felt her body shaken with tear. he wanted to comfort her, but he had no idea how to do it. He said, “He really loved you in his way, Clara. I don’t mean anything wrong . . .”(HC 334)

찰리(Charley)는 포트넘의 이름이고, 에두아르도(Eduardo)는 플라르의 이름이다. 포트넘은 새로 태어날 아기가 플라르의 아기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플라르를 좋아하게 되었고, 플라르 역시 클라라를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기의 이름을 에두아르도로 지으려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의 주인공인 플라르는 죽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기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난다. 그린은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플라르로 붙이는 장면으로 소설을 끝맺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그린의 의도하는 바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두 소설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맺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린의 소설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그린은 부활을 통해서 그의 종교관을 내비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처럼 그린의 지속적으로 부활에 대한 상징적 암시를 하는 것은 부활이야말로 가톨릭 교회의 가장 고



유한 신앙이며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쿨슈레스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력과 영광』의 마지막 장면에 새 사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위스키 신부가 성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기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은 이를 보고 우연이라고 말한다. 설사 이 일이 우연에 그칠지라도 사제의 등장은 그의 존재 자체가 상징하는 신의 권력과 영광이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다”(93). 그러나 이러한 쿨슈레스파의 입장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린의 그의 작품 속에서 부활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기적”의 의미보다는 부활을 통하여 종교의 순수성을 지속시키고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몬시뇨르 키호테』에서의 부활은 앞의 두 소설과는 아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앞의 두 소설에서 부활이 새로운 신부의 등장이나 플라르의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 작품에서의 부활은 정신세계의 변화라는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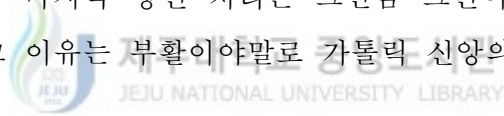
흔히 부활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거나 현재 생활의 연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해석된다. 그러나 부활을 그 근원적 의미인 새로운 차원의 삶이 영원히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해본다면, 공산주의자인 산초의 마음에서 독재자 프랑코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불타오른 일이야말로 육체적 부활이 아닌 “정신적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The Mayor didn't speak again before they reached Orense; an idea quite strange to him had lodged in his brain. Why is it that the hate of a man — even of a man like France — dies with his death, and yet love, the love which he had begun to feel for Father Quixote, seemed now to live and grow in spite of the final separation and the final silence —

for how long, he wondered with a kind of fear, was it possible  
for that love of his to continue? And to what end?(MQ 221)

앞서 지적했듯이 이 작품에서의 부활은 정신적 부활로 표현되고 있다. 산초의 마음 속에서 인간에 대한 미움이 사라져 버리고 키호테 신부에 대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신부에 대한 사랑은 곧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몬시뇨르 키호테』에서의 부활이 다른 두 소설과 성격이나 양상을 달리 하긴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린의 세 소설의 부활 장면을 모두 “마지막”에 그렸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린은 본 논문이 고찰하고 있는 세 소설을 통하여 이와 유사한 공통점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린의 사상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숨겨진 것이다. 특히 부활에 대한 우연과도 같은 마지막 장면 처리는 그만큼 그린의 이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부활이야말로 가톨릭 신앙의 정점**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 IV. 사제들의 삶과 죽음

### A. 의식과 행동

지금까지 우리는 그린의 세 작품 속에 나타나는 종교적 상징성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린의 인간관과 교회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세계와 행동양식이 교회와 사회정치제도 속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사제야말로 인간과 종교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린의 세 소설에 등장하는 사제들은 공통적으로 불안하고 내적 혼란에 빠져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통념 본다면 그들의 의식이나 모습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또한 사제의 내면에 혼재되어 있는 선과 악이 함께 표출됨으로써, 권위적이고 완벽한 모습을 한 사제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우선 『권력과 영광』에 등장하는 위스키 신부에 대한 그린의 묘사를 보면, 그는 알콜 중독자이다. 항상 술을 마시기 때문에 위스키 신부란 이름이 붙은 그는 불륜의 관계를 통해 사생아를 낳았으며, 가톨릭 교회가 탄압받는 상황에서 타바스코(Tabasco)지역에 유일하게 남게된 사제였기 때문에 경찰에게 추적당한다. 쫓기는 과정에서도 신부는 사제로서의 사명감이나 신의 구원에 몸을 의지하는 성직자가 아니라,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몸을 떠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위스키 신부는 사제가 갖추어야 할 선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타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준다. 또한 그는 교만한 사제이다. “그런 도

덕적 죄를 짓고도 고해도 하지 않고 돌아만 다녔는데 아무 변함이 없었다. 자신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혀끝에 닿는 브랜디에서는 곰팡내가 나는 것 같았다(unchanged by mortal sin and unrepentance and desertion. The brandy was musty on the tongue with his own corruption.)”(PG 169)라고 묘사되는 그의 모습은 작품의 무대인 그린랜드와 맞물려 작품 전체를 더욱 더 음침하게 만들 뿐이다. 이러한 그의 교만은 자신만이 그 지역에서 도피하거나 환속하지 않는 유일한 사제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안일을 위해 끝까지 고해성사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한 호세 신부와 비교해보면, 위스키 신부는 비록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거란 사실을 알면서도 죽어가는 엄마, 인디언 소년, 미국인 강도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며, 신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을 다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I’m your servant!)”(PG 45)라고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피폐한 인간성 속에 드러나는 위스키의 선이다.

이와 같은 위스키 신부의 선은 딸 브리지타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표출되는 부분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이는 그가 사목하던 옛 마을에서 딸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드러난다.

He was aware of an immense load of responsibility: it was indistinguishable from love. This, he thought, must be what all parents feel. . . . For years, of course, he had been responsible for souls, but that was different . . . a lighter thing.(PG 66)

다프나 어디스트 벌칸(Daphna Erdinast-Vulcan)은 이 장면에 대하여 “사

악하고 타락한 딸을 보는 순간 그는 ‘엄청난 책임감과 사랑’을 느낀다. 이 때가 바로 신부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결정적 시점일 것이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 브리지파는 자신의 추악한 죄를 상기시키지만 그는 죄의 결과인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35)고 말하고 있다.

위스키 신부는 그가 지역의 마지막 사제라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쫓기고 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정작 사제직을 버리지는 못한다. 그렇게 타락한 신부도 사제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도 회의적이지만<sup>1)</sup> 그는 천국의 사냥개에 쫓기는 사람처럼 사제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종교박해의 희생양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린은 이처럼 생전의 타락한 모습과 값진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위스키 신부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하여 사제도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명예영사』에 등장하는 리바스 신부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본다면 위스키 신부보다 훨씬 건전하고 진지하다. 그러나 그는 환속한 사제이다. 결혼을 하여 아내를 두고 있고, 총을 들어 게릴라에 합류한다. 그는 민중의 고통에 침묵하는 부패한 교회에 반발하여 파계하지만, 게릴라 조직에서는 조직의 일원으로써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리바스 신부는 실제 인물인 까밀로 토레스 신부를 연상시킨다. 그는 정의를 위해서라면 악의 무리와 함께 손을 잡을 수도 있으며 “타락한 세상에서는 범법자들이 오히려 정직한 사람일 수 있다(In the wrong society, criminals are honest men.)” (HC 128)고 믿고 있다. 또한 그는 신이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갖고

---

1) 비록 타락한 사제일지라도 그가 사제의 신분으로 있는 한 그가 행하는 성무(聖務)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소위 사효성(事效性-Ex opere operato)이며, 가톨릭 교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와 반대의 입장이 인효성(人效性-Ex opere operantis)인데, 이것은 사효론과 달리 주로 준성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준성사를 집행해주는 자의 정성이나 그 준성사를 받는 자의 마음자세에 따라 그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다. 박 도식, 『가톨릭 교리사전』(서울: 가톨릭 출판사, 1985), 76.

있으며, 인간들이 하기에 따라 선한 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진화론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인질 포트넘을 죽이자는 아키노의 주장을 무시하고 결국 그를 살리며 자신은 죽음을 무릅쓴다. 포트넘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사제로서 갖는 신앙적 입장과 그에 대한 인간적 연민 때문이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다. 정의를 부르짖으며 민중을 위해서 혁명대열에 참여한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인간 자체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조직이나 대의보다 우선시 하는 선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Quite safe. I could not kill a mouse. . . . I was never made to be a killer.”(HC 315)

이에 대해 폴 오프리(Paul O'Prey)는 “『명예영사』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폭력행사가 도덕적 논란거리가 된다. 이 문제는 스스로 총을 메고 투쟁에 참가하는 제3세계의 신부에 의해 제기된다. 여기서 그린은 초기 소설에서 추구했던 ‘상황윤리’<sup>2)</sup>의 영역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비록 리바스 신부는 착한 사람이지만 고통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강요당하고 있다”(132)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몬시뇨르 키호테』의 키호테 신부는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앞의

---

2) 상황윤리란 절대적 도덕 규칙이 아닌 규칙없는 윤리로서, 상황에 따라 그 규칙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서로 상충될 경우, 더 중요한 의무가 덜 중요한 의무에 우선되며, 때때로 악한 것들 사이에서의 선택에 직면했을 경우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윤리적 규칙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규칙도 다르게 주어지며 단지 사랑이 있든, 양심에 바탕을 둔 행위만이 판단의 근거가 되며 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 L 퍼틸, 『윤리적 사고방식』(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3), 83.

두 소설에 나오는 사제들에 비해 훨씬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 그는 진정한 포용력을 지닌 너그러운 사람이며,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양심적이고 순수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세속적으로 본다면 답답하리만큼 순수하다. 로마의 주교가 그를 몬시뇨르<sup>3)</sup>로 임명한다고 해도 그는 오히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며 극구 사양하려 한다. 교회조직에 대한 적당한 아부나 타협도 할 줄 모르는 그의 성격 때문에 그는 지역의 주교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다. 또한 그는 세상물정을 너무 모른다. “소녀의 기도(A Maiden’s Prayer)”라는 포르노 영화를 단지 그 제목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게 포르노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러 들어간다.

이 소설에서 키호테 신부는 직접적으로 선과 악이 혼재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지극히 선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이 그의 소설에서 사제의 모습을 설정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선악이 혼재된 인간적 모습에 있어서 키호테 신부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다. 키호테 신부의 경우는 그 형태가 공산주의와의 관계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키호테 신부는 공산주의자인 시장과 함께 여행을 하고 공산주의도 “동기”만 순수하면 충분히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마르크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해본 적이 없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으니까 그 착한 마음씨로 결국 구원을 받을거요.(I have never denied that Marx was a good man. He wanted to help the poor, and that want of his will certainly have saved him at the last.)”(MQ 45) 즉 키호테 신부는 신앙의 적대자조차도 사랑함으로써 기독교적 사랑의 정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옥의 존재를 믿느냐는 산초의 질문에 자신은 복종하느라 믿

---

3) 가톨릭 교회의 성직 계급에 있어서 “몬시뇨르”는 일반적으로 신부보다는 높고 주교보다는 낮은 직책을 뜻한다.

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다고 답한다. 여기서 북종하느라 믿는다는 말은 그가 사제로서 이단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것일 뿐 실상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도 다른 사람의 행동동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모든 사람의 동기를 소상하게 여기는 전지의 신이 우리의 악행을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즉 키호테 신부는 공산주의나 지옥, 그리고 모든 악은 결국 신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입장을 지닌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린은 그의 말년에 이르러 키호테 신부를 통해서 인간보다 더 관대한 신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그린은 왜 그의 소설에서 사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좀 더 우아하고 권위 있게 묘사할 수도 있는데도 하필이면 타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주인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의 권위 속에 안주하는 사제가 아니라 민중과 밀접한, 그러면서도 “인간의 얼굴을 한” 사제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사제도 인간이며 인간에게는 누구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그린의 굳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과 악에 대한 그린의 관점은 그가 『명예영사』와 『몬시뇨르 키호테』의 표지에 인용한 제사(題詞)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명예영사』의 제사로 다음과 같은 토마스 하디(Thomas Hardy)의 글을 선택했다. “모든 것은 서로 융합된다. 선은 악에, 관용은 정의에 그리고 종교는 정치에 . . . (All things merge in one another. Good into evil, generosity into justice, religion into politics . . .)” 또한 『몬시뇨르 키호테』의 첫 장에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There is nothing either good or bad, but thinking makes it so.)”라는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말이 적혀있다.

그린이 두 책에서 위와 같은 제사를 표지에 인용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그린의 작품세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화두(話頭)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는 모든 인간은 “선 또는 악(good or bad)”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good and bad)”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과 악은 한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 어느 한 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혼재되어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선한 면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악한 면이 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그린의 갖고 있는 인간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는 자서전 『도피의 방법』(*Ways of Escape*)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틀림없이 그 작가의 됃됨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마치 그들은 아기가 자궁 밖으로 나오듯 작가의 분신으로써 출현하는 것이다”(8)고 밝히고 있다. 이는 그의 소설에 나오는 사제들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그가 생각하는 인간관 - 선과 악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 에 기초한 것이며 작가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B. 정치와 종교

이 절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 혹은 이데올로기와 교조주의의 문제가 그의 세 소설에 나타나는 사제와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권력과 영광』을 살펴보면, 이 작품의 구성과 전개는 위스키 신부와 경위의 쫓고 쫓김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앞서 천국의 사냥개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여기서 위스키 신부의 내면세계는 쫓김의 과정에서의 행동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쫓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상황이다. 즉 혁명 이후 가톨릭 교회가 민중을 현혹하는 불순세력

으로 탄압 받는 상황에서 그는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에 쫓기는 것이다.

이 점에서 위스키 신부는 호세 신부와 비교된다. 호세 신부는 권력에 굴복하여 사제의 신분을 벗고 결혼하여 살고 있지만 그는 호세 신부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위스키 신부가 확고한 신앙심으로 무장했거나 불타는 사명감에 가득찬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행동방식은 우유부단함에서 비롯된다. 이런 위스키 신부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는데는 기존의 순교적 삶에 관한 접근보다 “제 3의 심리학”을 통한 분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본 논문 75 참조)

위스키 신부와 경위의 관계는 특이하다. 특히 정치와 종교에 관한 대립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대한 그린의 시각은 이 작품에서 신부보다는 오히려 경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경위와 신부의 공통점은 둘 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애정의 표현방식이 다를 뿐이다. 신부는 사제로서의 그의 역할과 삶에 깊은 회의와 좌절을 느끼면서도 항상 딸 브리지마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차 있다. 반면에 경위는 민중을 빈곤과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념적으로만 민중을 사랑할 뿐이다. 한 예로 경위는 신부를 숨겨준 마을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마을주민을 잡아 인질로 처형하기도 한다.

그러던 경위가 위스키 신부를 붙잡은 후에는 마치 삶의 목표를 상실해버린 사람처럼 허무감에 빠지고 오히려 신부를 동정하게 되며, 신부가 고해성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거나, 금지되어 있는 브랜드를 갖다주기도 한다. 특히 경위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상의 변화를 보이며 신부에게 이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should like to do something for you,” the lieutenant said.

“I’ve brought you some brandy.”

“Against the law?”

“Yes.”

“It’s very good of you.” . . .

“You have such odd ideas,” the lieutenant complained. He said, “Sometimes I feel you’re just trying to talk me round.”

(PG 206)

위 인용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끌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비평가들은 “사랑의 전이”라 부르고 있다(Sharrock 112). 즉 위스키 신부의 사랑이 경위에게 전이됨으로써 그가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위는 막상 위스키가 죽자 “마치 생이 이 지상에서 빠져나간 것처럼(as if life had drained out of the world)”(PG 207) 자신의 투철했던 신념에 회의를 느끼고 혼란에 빠지게 되며, 또한 그가 가장 중요하던 사제를 통해 오히려 삶의 새로운 측면을 느끼게 된다.

이 소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그린의 위스키 신부와 경위를 통하여 진정한 인간구원과 정치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역설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특히 그린은 소설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경위의 갈등과 심적 변화를 통하여 정치이데올로기가 갖는 허구와 현실에서의 적용문제에 대해 진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린은 이 작품을 통하여 정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공산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으나, 결국 한 인간이 처절한 고통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순수한 인간애와 정신세계가 승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린의 문제제기는 이후 『명예영사』와 『문시뇨르 키호테』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린은 알랭과의 대담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 『명예영사』라고 밝히면서, 그 까닭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29). 이러한 변화는 소설에 등장하는 세

명의 주인공인 리바스 신부와 플라르, 그리고 명예영사 포트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갈등을 리바스 신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먼저 리바스 신부는 그가 파계한 이유를 설명하는 다음 장면에서 부패한 정치인과 교회지도자들 그리고 민중의 고통에 침묵하는 교회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강도높은 비판을 한다.

“Sell all and give to the poor” – I had to read that out to them while the old Archbishop we had in those days eating a fine fish from Iguazu and drinking a French wine with the General.(HC 143)

그러므로 리바스 신부는 신의 개입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에서 신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타락한 사회를 개조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는 일이라 판단하고 케릴라조직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과 대치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바스 신부는 그가 속한 혁명조직과 케릴라운동, 그리고 그 속에서 딜레마를 느끼며 심한 갈등을 겪는다. 특히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죄없이 억류되어 있는 명예영사 포트넘에게 인간적 연민과 죄스러움을 느끼며 그를 돌봐주려 한다. “땅바닥에는 담요를 깔아도 너무 습해지니까요. 당신이 류머치즘에 걸리기를 바라지 않아합니다 (The earth is too damp for sleeping on, even with a cloth under you. We did not want you to catch rheumatism.)”(HC 146)라고 말하며 포트넘을 위해 리바스 신부는 침대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또 포트넘이 실수로 도마뱀을 죽인 일 때문에 울었듯이 리바스 신부 역시 쥐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며, 두 사람은 모두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다. 이들은 서로에게서 타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이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며 마음을 털어놓아 고백하려 한다. 이 소설에서 포트넘이야말로 리바스 신부의 변화를 주동하는 매개체이다.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의를 보고 등을 돌리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을 가지고 혁명에 참가한 리바스 신부이지만, 마음이 여리고 인간적인 그에게서 효과적인 작전을 기대하긴 애초부터 어려운 것이었다. 여기에서 리바스 신부의 딜레마는 포트넘을 죽이고 철수하자는 아키노의 제안과, 정치적 행위의 실패를 감수하면서도 개인의 목숨과 구원을 더 소중히 여기는 리바스 신부의 인간적인 태도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에서 그린은 리바스 신부의 인간적인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린은 결국 정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것이다.

한편 『몬시뇨르 키호테』에서 그린은 키호테 신부의 입을 빌려 윤리신학에 대한 비판을 통해 교회가 갖는 형식주의와 교조화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공산주의자 시장 산초와의 대화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에 관한 그의 사상을 매우 상세하게 피력하고 있다.

먼저 윤리신학에 대한 그린의 입장은 아래에 인용된 대화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다. 키호테 신부는 덩수룩한 외모에 30년간 엘토보소(El Toboso)에서 본당 사제로 봉직해온 경험 많은 사제이다. 그는 말고기 스테이크를 오랫동안 소고기인줄 알고 즐겨 먹는 소박함을 지닌 인물이다. 반면에 그를 대신하여 교구에 새로 부임하는 헤레라 신부(Father Herrera)는 하얀 피부에 깨끗한 칼라를 착용한 깔끔한 사람이다. 그는 윤리신학을 전공했으며 사목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젊은이이다. “그의 외모나 성격은 얼핏 『권력과 영광』의 경위를 연상케 한다. 이들의 외모나 경험, 지적 수준의 차이는 세상을 보는 눈과 사제로서 이들이 지닌 신앙의 차이를 시사한다”(최 재석 1992, 202).

“Your doctorate was in . . . let me remember.”

“Moral Theology.”

“Ah, I always found that a very difficult subject. I very nearly failed to pass – even in Madrid.”

“I see you have Father Heribert Jone on your shelf. A German. All the same, very sound on that subject.”

“I am afraid I haven’t read him for many years. Moral Theology, as you can imagine, doesn’t play a great part in parish work.”

“I would have thought it essential. In the confessional.”

(MQ 36)

But, Sancho, Moral Theology is not the Church. And Father Jone is not among my old books of chivalry. His book is only like a book of military regulations. St. Francis de Sales wrote a book of eight hundred pages called *The Love of God*. The word love doesn’t come into Father Jone’s rules and I think, perhaps I am wrong, that you won’t find the phrase “mortal sin” in St. Francis’ book.(MQ 79)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키호테 신부는 윤리신학이 사목하는데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헤레라 신부는 윤리신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키호테 신부는 윤리신학이 신자들을 딱딱한 교리와 관례에 얽어매는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윤리신학에 대한 그린의 입장이다. 그는 기계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오류를 낳는다고 보고 있다. 법이나 규칙, 신학에 의지하는 사람은

바리사이파와 같은 자만심을 낳는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 동정, 사랑의 원천이 메마르게 되며 자기 만족적이고 피상적인 사람이 된다 (최 채석 1992, 202). 이같은 그린의 입장은 『권력과 영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감옥에서 만난 신심이 깊은 여인과 항상 성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소년(루이스)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린은 형식적 율법만을 내세우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초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린은 보는 윤리신학은 사랑이 메마른 율법과도 같은 것이다. 살레스의 성 프란시스와 같은 성인들이 그들의 삶과 책을 통해 사랑의 신앙을 설교하고 용서와 자비를 주장했다면, 헤리베르트 존 신부가 신봉하는 현대사회의 윤리신학은 마치 군대법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린은 무슨 이유로 윤리신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의 많은 모순들 중에서 왜 그린은 윤리신학을 공격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린은 보기에 윤리신학이야말로 교조화된 현대교회의 전형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원래 윤리신학은 인간이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한 지침이었다. 신의 세계가 인간사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면 신의 뜻에 합당하게 죄를 덜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교회가 경직되기 시작하면서 윤리신학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의 경중과 유무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윤리신학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신자들을 교회의 교리와 형식에 얽어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린은 그렇게 변질된 윤리신학의 모습을 본래의 순수함으로 돌려놓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교조화를 극복하고 사랑의 교회, 자비의 교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한편 소설에서 키호테 신부는 종교적으로 본다면 순수주의자이다. 그는

종교의 본질이 인간구원에 있다고 믿으며 정치의 본질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는 결과보다는 동기의 순수성이 보다 중요하며 동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범한 죄도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토르케마다(Torquemada)<sup>4)</sup>나 스탈린이 저지른 악행조차도 그 동기의 순수성은 고려되어야 하며 마르크스도 인간구원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Torquemada at least thought he was leading his victims towards eternal happiness.”

“And Stalin too perhaps. It is best to leave motives alone, father. . . .”(MQ 42)

이렇게 그린의 소설에서는 법이나 교리에 의존하는 인물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냉혹한 반면, 동기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해의 폭이 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그의 시각은 자비의 신과 연결되어 그의 작품 구성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공산주의에 관한 그린의 사상과 관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린은 단순히 젊은 시절 한때 공산주의운동에 참여했다가 탈당한

---

4) 중세 유럽 당시 스페인에는 자신들의 종교를 고수하는 마라노스(Maranos)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들과 결혼하는 순수 스페인계 기독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스페인에는 유대교 개종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우려한 당시 도미니끄 수도회 소속 토르케마다 신부(Father Tomas de Torquemada)는 종교재판소를 세워 유대교인을 이단자로 몰아 말살하려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믿음의 행위”라는 이름으로 화형을 시켰다. 잔인한 그의 종교, 인종 탄압으로 30,000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처형되었으며 1492년 페르난드 이사벨라 여왕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 A Regrettable Life: Tomas de Torquemada, Beth Randal, <http://www.mcs.drexel.edu/~gbrandal/Illum-html/Torquemada.html>



것이 아니라 그 평생을 공산주의사상에 어느 정도 심취해 있었다. 다만 현실정치 속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변질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데 대해 실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 대해 그는 알랭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늘 좌익사상에 경도되어 왔고 나이가 들수록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은 확고해졌다. 내 첫 작품에서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흐르고 있는 일관성은 사회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나의 관심이다.(78)

왜 내가 공산주의 사상에 이끌리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communism with a human face)와 같은 천진난만한 꿈을 키우고 있듯이 나 또한 그러한 것 같다. . . . 1971년 나는 칠레의 아옌데를 만났는데 그는 나를 보고 무슨 이유로 칠레에 왔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나는 인간의 얼굴을 한 공산주의를 찾고 있습니다(I'm searching for the communism with a face)”라고 대답했다. 그후 나는 미국과 소련에 의한 아옌데와 두부체크의 실각을 보았고 역시 공산주의도 스탈린주의나 독재체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91)

한편 『몬시뇨르 키호테』에서 키호테 신부는 리바스 신부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설에서 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산초이다. 이 관계는 『권력과 영광』의 경위와 유사하다. 즉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 위스키 신부 대신 그린은 경위를 통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을 암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키호테 신부 역시 정치적 인물은 아니지만 대신 산초와의 대화를 통해 그린의 정치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경위가 위스키 신부의 죽음 이후 신앙에 대한 암시를 받으며 변화하는 것과, 산초가 키호테 신부의 마지막 미사에서 성체를 영함

으로써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키호테 신부는 무의식의 마지막 미사에서 산초에게 성체를 주며 그가 성체를 받아먹자 “이렇게 믿음으로써, 이렇게 믿음으로써 . . . (By this hopping, by this hopping . . .)”(MQ 278)라는 말을 남기며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다. 키호테 신부와 산초가 서로 변화해가고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과 관계에 대해 폴 오프리는 “그린이 갖고 있는 종교적, 정치적 신념은『몬시뇨르 키호테』에 이르러 타협점을 찾게된다. 신부는 신앙을, 산초는 공산주의 사상에 회의를 품으면서 둘 다 신념에 대한 불확실성, 인간애, 이해와 관용을 받아들이며, 불의와 억압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12)라고 지적한다.

### C. 죽음, 그 동기와 과정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그리니의 세 작품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바로 사제들이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세 작품에서 사제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아주 사소한 동기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행된다는 점이다.

『권력과 영광』에서 위스키 신부는 독자들로 하여금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 속에서 계속 쫓김을 당한다. 위스키 신부는 인질로 잡힌 마을주민이 자기로 인해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도 자수하지 못하고 계속 숨어 다니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 조각 하나를 놓고 개와 으르렁거리며 싸우면서도 계속 라스 카사스(Las Casas)를 향해 도망친다. 그런데 마침내 치아파스에서 처음으로 마을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으며 미사를 드리고 나서 라스 카사스로 떠나려고 할 때 혼혈인이 그를 찾아온다. 그는 위스키 신부

에게 “자비의 심부름을 왔다(I’m here, father, on an errand of mercy.)” (PG 177)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자비의 심부름이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미국인 강도가 죽기전에 종부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유일한 사제인 위스키 신부를 그가 숨어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는 일이다.

위스키 신부는 그의 말을 듣고 곧장 미국인 강도에게로 향한다. 물론 거기에 가면 경찰에 붙잡혀 죽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대신 지금이라도 탈출하면 이제 곧 경찰의 추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라스 카사스에 갈 수 있다는 점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혈인과 함께 미국인 강도의 종부성사를 위해 다시 그 지옥과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많은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안타까워 한다. 여태까지 간신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쫓겨다니다가 이제 곧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왜 그가 다시 혼혈인과 함께 돌아가려 하는지에 대해 아쉬워 한다. 또 혼혈인을 더욱 미워하게 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 점이야말로 바로 그린의 이 소설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구원의 길이다. 가장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일 때 비로소 인간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것이 그린 사상의 핵심인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도 위스키 신부는 그가 붙잡혀 죽게 된다는 점을 익히 알면서도 탈출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악인인 미국인강도의 종부성사를 주려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쿨슈레스타(Kulshrestha)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요한복음 15:13의 말을 인용하면서, 주인공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설정한 그린의 의도를 이 복음을 통해 설명한다(86-87).

이는 『명예영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난 후 아지트가 포위된 치열한 상황에서 경찰은 계속 명예영사 포트넘을 풀어주라고 요구하고 게릴라들은 그를 죽일 것이

나 말 것이냐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경찰과 일전을 벌임으로써 죽음을 맞기로 한다. 그 와중에 플라르는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은 너무 허무하다며 자신이 대령과 안면이 있으니 일단 나가서 그를 만나 대화를 해보겠다고 주장하고 리바스 신부는 그를 말린다. 그러나 플라르는 밖으로 나가고 그 순간 경찰의 총격을 받고 그는 쓰러진다.

리바스 신부는 바로 그 상황에서 플라르에게 뛰어간다. 그리고 그도 역시 총에 맞아 쓰러져 죽는다. 목숨이 끊기기 전 리바스 신부는 플라르에게 “날 필요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I thought you might need me.)”(HC 316) 그에게 왔다고 말한다. 그는 이렇게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과 영광』과 무척 유사하다. 더구나 그 목적이 종부성사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마치 한 작품처럼 여겨질 정도이다. 특히 리바스 신부의 경우, 위대한 혁명적 대의를 위해 영웅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친구의 종부성사를 위해 목숨을 잃게 되는 부분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와 같이 갑작스런 전개과정과 예기치 못했던 너무도 순간적인 죽음은 『몬시뇨르 키호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키호테 신부와 산초는 경찰의 추적을 당하고 그들의 자동차 로시난테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수도원 벽에 충돌하고 만다. 그 사고로 키호테 신부가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것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며 과정이다. 물론 『명예영사』와는 달리 부상 직후에 금방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상태에서 성체도 없는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나서 죽게 되지만, 그의 죽음 역시 예기치 못하고 허무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키호테 신부가 경찰에 쫓기게 되는 이유도 중요하다. 여행 도중 그는 우연히 은행강도를 숨겨주게 된다. 또한 어느 마을을 지나다 교회의 축제일에 돈 많은 멕시코 사람들이 성모마리아 상을 운반하는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경매를 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이를 보고도 교회는

묵인하며 오히려 은근히 부추긴다는 사실을 알고 성모행렬이 시작되려는 순간, 키호테 신부는 마리아 상에 붙어 있던 지폐들을 모두 찢어버리며 멕시코인들과 대립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키호테 신부와 산초는 경찰에 쫓기게 되는 것이다.

앞의 두 소설과 『몬시뇨르 키호테』가 다른 점은, 앞의 두 소설에서 두 신부가 다른 사람의 중부성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다면 키호테 신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앞의 두 소설에서 위스키 신부와 리바스 신부가 계속 쫓기거나 경찰과 대립하여 목숨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었다면, 키호테 신부의 경우는 오히려 경찰에 쫓기긴 했어도 그 쫓기게 되는 이유가 지극히 사소한 행동 때문이었으며 또한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행강도를 숨겨주거나 교회의 타락상에 분노하여 항거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위스키 신부가 혼혈인의 말을 듣고 미국인 강도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나, 리바스 신부가 죽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플라르에게 달려간 이유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의 사제들의 죽음을 그리면서 하필이면 이렇게 사소한 사건이나 동기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관심거리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음 절과 사랑의 실천을 논하는 결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 D. 죽음의 실체와 의의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세 소설에 등장하는 사제들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된다는 점과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아주 사소한 사건들 때문이

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린의 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제들의 죽음은 분명 그린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상징이며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을 기존의 비평가들은 과연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올바른 관점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권력과 영광』의 위스키 신부의 죽음에 관한 기존의 비평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린의 그의 소설들 속에서 사제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서론에서도 설명했듯이, 『권력과 영광』에 대한 비평가들의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위스키 신부의 삶과 죽음에 관한 것들이다. 특히 그들은 위스키 신부의 죽음이야말로 “순교”라고 할만큼 숭고한 죽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허버트 하버(Herbert Harber)는 “위스키 신부의 죽음은 성인 품에 이르는 숭고한 죽음이다”(266)고 표현하고 있으며, 쿨슈레스타(Kulshrestha)는 “위스키 신부의 죽음은 절망적 행위가 아닌 성인다운 최후”(87)라고 추앙하고 있다. 또한 셰록(Sharrock)은 위스키 신부를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며 사생아까지 둔 타락한 인물이고 성직에 끝까지 충실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의 용감한 회개와 혼혈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타인에게 미친 그의 영향력을 열거하며 위스키의 성인다운 면모를 강조했다(123).

이러한 비평적 시각의 배경에는 위스키 신부의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의 상황과 연결지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순교로 보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깔려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프랜시스 킨클(Francis Kunkel)은 이 소설의 플롯을 그리스도 수난의 모방이라고 해석한다. 그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부를 밀고하는 혼혈인은 예수를 배반한 유대이다. 또 고뇌에 찬 감방은 겿세마니이며 안전한 라스 카사스로 피신하려는 위스키 신부의 유혹은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받은 유혹으로 풀이한다. 그리고 그

가 미국인강도와 나란히 사진이 붙여지고 현상수배되어 결국 붙들려 죽게 되는 장면은 바랏바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으로, 겁쟁이 호세 신부가 숨겨달라는 위스키 신부를 밀쳐내고 또 그의 고해성사를 거부하는 것은 베드로가 세 번 예수를 모른다고 배반한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101-153).

이러한 비평들은 한마디로 위스키 신부의 생애와 최후를 성인다운 삶과 죽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과 달리 위스키 신부를 다른 관점에서 보는 비평들도 있다. 한 예로 마리아 꾸또(Maria Couto)는 『권력과 영광』은 끈질긴 추적과 도피생활 속에서 인간적으로 나약해진 신부가 모욕당하고 품위를 잃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신부의 죽음 역시 순교가 아닌 도덕적 죄값에 대한 업보”(72)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키 신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대표주자는 역시 “제 3의 심리학”을 통해 그를 비판하는 조 스트롭(Joe Straub)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위스키 신부의 죽음을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우리는 위스키 신부의 죽음에 대한 평가 — 영웅적 행위, 순교, 교회를 위한 결단 — 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의 행동 동기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는 결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명백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인물이며, 설사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신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자아(idealed self)”를 위해 “진정한 자아(real self)”를 버리도록 설득 당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죽음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인간적인 동기가 결여되었으며, 지나친 이상주의에 얽매인 마지못한 복종이라는 것이다. 위스키 신부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주인공이 흔히 택하는 도피수단인 죽음이 미화된 예이며, 소설의 막바지에서 그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그 이유는 그것이 “이상적 자아”에 짓눌려 불행하게 살아온 지난 날의 삶으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이다”(193-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의 대부분을 점하는 것은 역시 위스키 신부의 죽음을 숭고하게, 그리고 순교자다운 죽음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그린의 의도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과연 그린의 그리고자 했던 사제의 죽음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를 통해서 그린은 무엇을 주장하고자 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그린은 그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사제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설정했다. 그것은 사제의 죽음이 갖는 “파급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위스키나 리바스, 키호테 신부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위의 다른 인물들에게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위대한”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할 뿐 아니라, 어딘지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인 사제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권력과 영광』의 위스키 신부는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죽음을 택하게 되고 이는 경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선다. 가장 냉정하고 철저한 정치이념의 신봉자였던 경위가 오히려 신부의 그러한 변모로 인해 거꾸로 변화하게 된다. 『몬시뇨르 키호테』의 산초도 이와 너무나 유사하다. 그 역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는 신학교육을 받았지만 무신론을 더 추종한다. 그러던 그가 키호테 신부의 죽음을 통해 신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 물론 그린의 소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산초의 변화를 서술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들은 누구나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명예영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찰과 대치되어 있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리바스 신부는 플라르와 포트넘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 과정에서 리바스 신부 자신도 변화하지만 플라르와 포트넘도 변화한다. 플라르는 무신론자였지만 옛 친구인 리바스 신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세상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냉정했던 그가 인질극에 연루되면서 그들의 일에 동조하면 함께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한편 포트넘은 리바스 일당이 그를 납치한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간적 애정



과 연민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사랑을 배우게 된다. 특히 그가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가 갖고 있는 아기가 플라르의 아기임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후 아기의 이름을 플라르의 이름을 따 에두아르도라고 붙이며 불륜의 아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용서해주고 그들의 진정한 사랑을 인정해준다. 그린은 이렇게 플라르와 포트넘, 그리고 리바스 신부의 극적인 심리변화 때문에 이 소설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라고 서슴없이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세 소설에 등장하는 사제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앞절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기”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한결같이 하찮고 사소한 것들이다.

우선 위스키 신부는 보잘 것 없는 미국인강도의 종부성사를 위해 스스로 경위에게 붙잡히는 길을 택한다. 그것은 그가 바로 눈앞에 있는 가장 버림 받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죽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보다 큰 종교적 대의나 교회의 영광보다도 그린은 미국인강도를 선택한 것은 미국인강도가 시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잘 것 없고 비참한 이웃이기 때문이다. 사제의 직분상 그런 이웃의 종부성사를 주는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편 리바스 신부는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오직 그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다. 사실 그가 뛰쳐나간다 해도 그는 결코 플라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플라르를 혼자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리바스 신부는 민중을 구하는 혁명적 대의보다도 자기의 눈 앞에서 죽어가는 친구의 목숨과 영혼을 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소중했던 것이다. 즉 혁명이념을 통한 추상적인 사랑의 실천보다는 결국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임을 그린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키호테 신부의 죽음은 직접적이지 않다. 물론 그가 죽음을 앞

둔 마지막 미사를 통하여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산초를 변화시키긴 하지만 어떤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린은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이 소설에서는 키호테 신부의 사랑의 실천을 이미 많이 보여줬다. 그의 사랑은 바로 “관용”이다. 그는 동기의 순수성만 있다면 악인도 용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까지도 “염소”를 걱정한다. 심지어는 그의 차 로시난테와 같은 살아있지 않은 생명체를 비롯하여 가장 하찮은 미물인 모기와 빈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유용성을 주장하며 사랑하려 노력한다. 따라서 위스키 신부와 리바스 신부가 죽음을 통하여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다면, 키호테 신부는 그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 론

본 논문은 그린의 세 소설 『권력과 영광』, 『명예영사』 그리고 『몬시뇨르 키호테』에 나타난 종교적 상징성과 의미 그리고 사제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린의 추구하는 종교의 지향점과 진정한 인간구원의 길, 즉 사랑의 실천에 대해 연구했다. 그린에 나타난 종교적 양상의 발전과정을 『권력과 영광』, 『명예영사』, 『몬시뇨르 키호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고민하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구원의 길”이 점점 심화되어 사제들의 모습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편의 소설을 통해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는 특징들을 정리하면, 첫째, 이 소설들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무대가 모두 치열한 사회혁명의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린은 혁명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둘째, 소설 속에 나오는 사제들은 결코 완벽한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으며 갈등 속에서 항상 고민하는 결점투성이의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제들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박해현장에서의 숭고한 죽음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죽음이 순교적 죽음인지 또는 평범한 죽음인지조차 혼란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셋째, 세 소설에 그려지고 있는 사제들의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통해 그린은 바로 인간해방과 사회구원의 본질은 그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종교소설을 통하여 그린의 주장하고 있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접근이며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린은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here & now)”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며, 따라서 사제들의 허무한 죽음은 가장 소박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원의 본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과 영광』의 타락한 위스키 신부는 교회가 폐쇄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장 비천한 이웃인 미국인 강도의 종부성사를 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다. 신부는 자신을 희생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결국 경위를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명예영사』의 리바스 신부는 타락한 교회와 사회악에 맞서 과감히 혁명대열에 참여하지만, 한낱 정치이데올로기에 불과한 사회혁명에 회의를 느끼며 정치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무의미함을 깨닫는다. 그린은 리바스 신부를 통해서 사회악에 침묵하는 교회를 고발하면서 거창한 사회혁명보다도 단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몬시뇨르 키호테』에서는 위스키 신부와 리바스 신부를 뛰어넘어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 그린은 기존의 교회 체계와 정치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사랑과 자비의 본질을 지향하는 키호테 신부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에서 키호테 신부는 자신이 믿고 있는 “자비의 신”이 결국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을 구원해주실 것을 확신한다. 즉 그는 양과 염소의 대비를 통해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라”는 사랑의 정신을 보여준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탐구하고자 노력했던 그린의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그린은 『권력과 영광』에서 위스키 신부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개인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다면, 『명예영사』에서는 리바스 신부의 투쟁과 죽음을 통해 사회구원의 길을 보여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몬시뇨르 키호테』에서는 키호테 신부를 통해 정치와 종교, 사회와 개인이 결합된 총체적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그린은 인식하고 있다. 즉 이 세

상에 절대적인 선인은 없다는 것이 그린의 관점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항상 고민하고 절망하는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완성된 인간은 없고 오직 과정상의 인간의 모습일 뿐이다.

한편, 그린에게 있어서 교회는 타락하고 원죄에 휩싸인 인간들이 모인 집단일 뿐이다. 그러나 교회는 신성하다. 교회는 타락한 인간들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은총이 있기에 신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성해야 할 교회가 온갖 부패와 형식화로 인해 본래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그린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은 우리가 살펴본 세 소설에서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나 체계의 잘못과 지나치게 형식으로 빠져드는 교회의 실상을 호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그린은 추구했던 점은 교회의 순수성을 되찾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정치든 교회든 교조주의에 빠져버린 질서야말로 인간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그린은 꾸준히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아울러 교회의 타락과 신학의 교조화 뿐만 아니라 그린은 많은 질책을 가하고 있는 것은 정치이데올로기의 교조화이다. 이는 『권력과 영광』의 경위가 정치제도를 통한 사회개혁을 신봉하다가 위스키 신부를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 또는 『명예영사』의 리바스 신부가 게릴라조직이 내세우는 혁명적 대의나 정치이데올로기도 인간사회를 구원하기에는 너무 변질되고 딱딱하게 화석화되어 버렸음을 자각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몬시노르 키호테』에서 인간구원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공산주의가 스탈린이 통치하는 종주국에서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게 되는 모순점 등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린에게 있어서 교회와 정치이데올로기의 교조화는 같은 맥락에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린은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here & now)의 사랑의 실천”이다. 또한 인간은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며, 결국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자비의 신”이

라는 확신이다. 그린은 자비의 신을 믿었다. 인간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일상 속에서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아주 소박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여부는 신의 판단에 달린 일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린은 『몬시뇨르 키호테』에서 강조했던 동기의 순수성과 관용의 정신, 죄인조차도 용서받아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사제의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변화되는 다른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마침내 자비의 신이 인간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속죄할 줄 아는 겸허함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그것도 가장 보잘 것 없는 가까운 이웃에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아주 구체적이고 소박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자비의 신”은 죄 많은 인간들을 분명히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이 바로 그린의 그의 종교소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가 와해되고 전세계적으로 민족, 종교분쟁이 난무하는 현 시점에서 그린의 그의 소설들을 통하여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교조주의의 극복과 관용의 철학,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된다.

# Bibliography

## I. Primary Sources

- Greene, Graham. *The Power and the Glory*. New York: Penguin Books, 1971.
- \_\_\_\_\_. *The Honorary Consul*. London: The Bodley Head Ltd., 1973.
- \_\_\_\_\_. *Monsignor Quixote*. London: The Bodley Head Ltd., 1982.
- \_\_\_\_\_. *Ways of Escap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0.
- \_\_\_\_\_. *The Lawless Roads*. Middlesex: Penguin Books, 1979.
- \_\_\_\_\_. *Collected Essays*. London: Penguin Books, 1988.

## II. Secondary Sources



- Adamson, Judith.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London: The Macmillan, 1990.
- Allain, Marie-Francoise. *The Other Man: Conversation with Graham Greene*. Tr. Guido Waldma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 Bloom, Harold. *Graham Greene: Modern Critical View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Bradbury, Malcolm, and Bigsby, Christopher, Eds. *Graham Greene: Contemporary Writers*. New York: Methuen Co. Ltd., 1983.
- Couto, Maria.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London: Macmillan Press, 1988.
- Creese, Richard. "Graham Greene and Modern Narrative Practice." Diss.

- UCLA, 1984.
- Daniel, Diephouse. "The Sense of Ends in Graham Greene and *The Power and the Glory*." *Journal of Narrative Technique*. 20.1(Winter, 1990): 22-41.
- DeVitis, A. A. *Graham Greene* Rev. Ed. Boston: Twayne Publishers, 1986.
- Elliott, Malamet. "Art in a Police Station: Detection, Fatherhood, and Textual Influence in Greene's *The Honorary Consul*." *Texas Studies in Literature and Language*. 34.1(Spring, 1992): 106-28.
- Erdinast-Vulcan, Daphna. *Graham Greene's Childless Fathers*. London: Macmillan, 1988.
- Evans, Robert O. Ed. *Graham Greene: Some Critical Considerations*. Lexington: U of Kentucky P, 1963.
- Harber, Herbert. "The Two Worlds of Graham Greene." *Modern Fiction Studies*. III(Autumn, 1957): 256-68.
- Hynes, Samuel. Ed.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1973.
- Kennedy, Brian Philip. "Cultural, Critical and Catholic Politics: A Dialogic (Re)reading of Graham Greene." Diss. Miami U, 1993.
- Kulshrestha, J. P. *Graham Greene the Novelist*. Delhi: Macmillan, 1977.
- Kunkel, Francis. *The Labyrinthine Ways of Graham Greene*. New York: Paul P. Appel, 1960.
- Leigh, David J. "The Structure of Greene's *The Honorary Consul*." *Renaissance*. 38.1(Autumn, 1985): 13-25.
- Matuz, Roger. Ed. "Graham Greene." *Contemporary Literary Criticism*. 70 (1991): 285-94.
- McEwan, Neil. *Graham Greene*. London: Macmillan, 1988.
- Meyers, Jeffrey. Ed. *Graham Greene: A Reevalu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O'Prey, Paul. *A Reader's Guide of Graham Greene*. London: Thames and Hudson, 1988.
- Sharrock, Roger. *Saints, Sinners, and Comedians: The Novels of Graham Greene*. Notre Dame, IN.: U of Notre Dame P, 1984.
- Singh, Preeti. "Graham Greene's Third World Fiction: The Politics of Place and the Discourse of the Other." Diss. George Washington U, 1988.
- Smith, Graham. *The Achievement of Graham Greene*.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1986.
- Straford, Philip. *Faith and Fiction: Creative Process in Greene and Mauriac*. Notre Dame, IN.: U of Notre Dame P, 1964.
- Straub, Joe. "A Psychological View of Priesthood, Sin, and Redemption in Graham Greene's *The Power and the Glory*." *Third Force Psychology and the Study of Literature*. Ed. Paris Bernard.J. Rutherford, NJ.: Fairleigh Dickinson UP, 1986, 191-205.
- Votteler, Thomas, Ed. "Graham Greene." *Comtemporary Literary Criticism*. 72 (1993): 146-80.
- Walsh, Thomas. *The Catholic Antholog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7.
- 구티에레즈, 구스타보. 『해방신학』. 성 넘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7.
- 김 성균. "그레엄 그린의 종교적 방법." 『영어영문학』. 제45권(봄, 73): 55-78.
- 김 용규. "바흐친의 언어 이론과 소설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오늘의 문예비평』21(여름, 96): 197-200.
- 러녹스, 페니. 『민중의 외침』. 이부영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4.
- 박 도식. 『가톨릭 교리 사전』.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5.
- 박 선부. "The Power and the Glory - Alter Ego의 Mirror Image로 본 Whisky Priest." 『영어영문학』. 제27권 4호(겨울, 81): 779-802.
- 보프, 레오나르도. 『구원과 해방』. 정한교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6.

- 이 동의. “인간: 교회의 길-그리스도교 인본주의를 향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17호(가을, 96): 111-38.
- 최 재석. 『그레엄 그린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93.
- \_\_\_\_\_. 『그레엄 그린의 소설과 우나무노』. 서울: 한신문화사, 1992.
- \_\_\_\_\_. “그레엄 그린의 소설 - 각성의 미학.” 『영어영문학』. 제31권 2호(여름, 85): 279-98.
- 퍼틸 L, 리차드. 『윤리적 사고방식』. 김기순, 양승렬 공역. 서울: 숭실대학교, 1993.



## Abstract

### The Religious Aspect in Graham Greene's Novel — Centering on priests in *The Power and the Glory*, *The Honorary Consul*, *Monsignor Quixote* —

Park Ahn-ja

Dept. of English Lang. & Li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Prof. Kim Sun-he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religious aspect and investigate how Greene's idea of salvation has progressed through his three novels, *The Power and the Glory*, *The Honorary Consul* and *Monsignor Quixote*, by analyzing the ideas and behaviors of priests and Catholic elements in his novels. Through the preceding study, I have analyzed how Greene's idea is reflected and to what importance Catholic elements and symbolism carry, centering on Father Whisky in *The Power and the Glory*, Father Rivas in *The Honorary Consul*, and Father Quixote in *Monsignor Quixote*.

The content of these three novels is composed of "The Hound of

Heaven”, “Sheep and Goats”, “Good and Evil” and the centers of Catholicism which are last mass, confession and revival. These three novels all have these elements in common, moreover, it can be concluded that Greene put the symbolism of revival at the end of the story intentionally.

It can also be said that the question of salvation is a consistent theme in Greene’s novels. The previous critical points of view on the considerably important death of Father Whisky in *The Power and the Glory* focused mainly on the priest’s personal death. However, what I have centered on is why Greene put Father Whisky in such a depraved and miserable situation. In addition, I have found an approach as to the reason Father Whisky sacrificed himself for the most unworthy person. Greene emphasizes the vain death of priests which is also be found in *The Honorary Consul* and *Monsignor Quixote*. The death of Father Rivas in *The Honorary Consul* is neither revolutionary nor religious at all. In some ways, it can instead be considered that he gave his life meaninglessly in order to save his friend, Plarr. This sort of attempt by Greene was continued repeatedly. Father Quixote in *Monsignor Quixote* died after being chased with Sancho because he provided shelter to a bank robber. In Father Quixote’s case, this is also a vain death, like the two main characters of the previously discussed novels.

So far, the deaths of the priests have been mainly interpreted in terms of either a religious martyrdom or a critical approach which is bounded by a schematized formula of political and ecclesiastical ideology. However, if the change of Greene’s idea is understood as a process from *The Power and the Glory*, *The Honorary Consul* to *Monsignor*

*Quixote*, the question of the salvation of society and human beings, which Greene continually insists upon and worries about, becomes more and more materialized. Furthermore, particularly in *Monsignor Quixote*, the typical character of the priest comes to type. In other words, Father Quixote strongly criticizes the dogmatization of political and ecclesiastical ideology and emphasizes that indulging in dogma is the biggest obstacle on the road to salvation. He also shows generosity and believes in mercy of God.

Eventually Greene delivers significant truth that the question of salvation should be answered through the simplest but concrete practice of small love for neighbors “here and now”. He carries the conviction that “the God of mercy” will not extend a helping hand to us until we all practice such a naive love.

